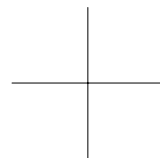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오 세 익	선임연구위원
김 동 원	전문연구원
박 혜 진	연구조원



연구 담당

오 세 익 선임연구위원 연구기획 및 총괄, 1장, 2장, 6장 집필
김 동 원 전문연구원 3장, 4장, 5장, 6장 집필
박 혜 진 연구조원 자료집계 및 통계분석, 3장, 4장 집필

머 리 말

최근 우리나라의 농업은 UR, WTO, FTA, 쌀협상 등의 영향으로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다. 농산물시장 개방은 식량 생산의 감소라는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농업이 제공하는 국토 균형발전, 농촌고용 증진, 환경·생태계 보전, 식량안보, 전통문화 계승 발전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공익적 기능이 위축된다는 점에서도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와 같은 다원적 기능은 UN, FAO,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그 존재를 인정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자국의 다원적 기능 확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DDA 농산물협상에서도 다원적 기능의 중요성을 인정해 이와 관련된 민감 품목은 시장개방의 폭과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도, 지원 의사 등을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향후 농업·농촌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 의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홍보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농업 및 농촌의 다원적 기능 유지·보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정책 개발과 정책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2004.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정 환

요 약

이 연구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일반국민(도시민)의 의식을 파악해 다원적 기능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국 6대 도시 20세 이상 50세 미만의 성인 남녀 1천명을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도시민들이 느끼는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이해가 상당 수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업의 중요성 인식이 84.2%에 달했으며, 농업은 이미 상당 부분 개방되었고,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 식량안보를 위해 농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식이 95.3%에 달함으로써 개방과 관련한 도시민들의 농업에 대한 보호 의식은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원적 기능 중에서는 ‘환경 및 생태계 보전 기능’을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꼽고 있으며, 나머지 식량안보 기능과 국토균형발전, 사회문화적 공익기능, 농촌 경관 보전 기능도 응답자의 80% 이상이 중요한 기능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시민들의 농촌관은 자신의 이해가 관련된 부분에서는 다소 소극적으로 변하여, ‘자식이 농업에 종사한다면 찬성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37.5%에 불과하고, 다원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는 도시민은 48.0%에 그쳤다. 이러한 결과를 선행 연구(박대식, 김정호 1999)와 비교해 보면, 현재에도 도시민들은 농업·농촌이 중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으나 중요성 정도는 과거보다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산물 시장의 추가개방을 막아야한다’는 데에 동의하는 비율은

1999년 조사시보다 13.0%p 낮아진 70.9%로 나타나 농산물시장 추가 개방에 대해 도시민들은 어느 정도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고, 다원적 기능 유지를 위한 세금 추가 지불 의사는 1999년 68.4%에서 2004년 48.0%로 5년 만에 20.4%p나 낮아져 도시민들의 농업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의사는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계층을 분석해 보면, 연령별로는 젊을수록, 특히 20대가 취약계층이라고 판단되며, 또 남자가 여자보다 긍정적인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농촌생활 경험이 없고, 가족이 농사에 종사하지 않는 계층도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들과 이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지불 의사의 개인특성 분석(순서형 프로빗 모형-Ordered-response Probit Model)을 통해서도 실증적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논리개발을 통해 기존의 정서에 호소하는 홍보방식에서 탈피해 가치를 알리고 설득하는 방향전환이 요구된다.

농업·농촌에 대한 대국민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를 통해 파악된 취약계층별로 적절한 홍보기법을 적용하는 한편, 주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정책을 알려오는데 치중했던 기존의 홍보 방식을 지양하고,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농업의 다양한 가치를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게 홍보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홍보 실천 방안으로는, ① 후계세대에 대한 다원적 기능 교육 확대 및 강화 ② 농촌주민과 도시민 교류사업 강화 ③ 전 국민 대상 농촌사랑 캠페인 전개 ④ 언론의 농업관 재정립 및 대언론 홍보 활동 강화 ⑤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강화 ⑥ 사회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A Public Survey on 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

This study is aimed to survey public opinions on agriculture and agricultural multi-functionality, and to find appropriate measures, based on the survey, to increase nation-wide interest in and support for agriculture. 1,000 people composed of males and females aged between 20 and 50 years old were selected from six large cities in Korea. The survey was carried out through the Internet and telephone interview in July 2004.

The survey finds that most city dwellers highly appreciate commodity and non-commodity outputs of agriculture. Approximately 84% of the people surveyed is found to think that agriculture is important for national economy, and 75% answered that domestic agricultural market has been open to foreign countries too much. Most interviewees (95.3%) agre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give more support to agriculture to secure agricultural non-commodity outputs.

Among various non-commodity outputs, those surveyed thought that the most important is 'protection of environment and ecology system', followed by 'food security', 'balanced territorial development', 'social and cultural heritage', and 'rural landscape'.

Despite the high-degree awareness of agricultural multi-functionality, however, only 37.5% of the interviewees agreed that it is fine for their children to take a job in the agricultural sector, and only 48.0% was willing to pay more taxes to secure agricultural non-market services.

Based on comparison with previous studies, this study has found that people's determination to protect domestic agriculture has weakened over time. The percentage of those who answered

positively to the question 'no more additional opening of domestic agricultural market' has dropped from 83.9% in 1999 to 70.9% in 2004, and the rate of the respondents, who are willing to pay more taxes to protect agriculture, has decreased by 20.4% during the same period.

In order to increase people's interest and support for domestic agriculture, the previous passive act of simple announcement of agricultural policies for farmers should be changed to a positive and realistic tactics of making all the people realize the value of non-commodity outputs of agriculture and its implication for the national economy. To this end, the study recommends as follows: 1) Educate the young generation about 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 and its value; 2) Promote relationship and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city and rural people; 3) Implement the campaign to draw nation-wide attention to agriculture and rural regions; and 4) Conduct PR activities through media, the Internet, and social education programs.

Researchers: Se-Ik Oh, Dong-Weon Kim and Hye-Jin Park
E-mail Address: seikoh@krei.re.kr

차 례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2
3. 주요 선행 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5

제2장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개념과 논의 동향

1.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개념 7
2. 다원적 기능의 종류와 중요성 9
3.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내외 논의동향 17

제3장 농업의 다원적 기능 도시민 의식 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18
2. 조사결과 분석 22
3. 조사결과 분석 종합 50

제4장 농업의 다원적 기능 중요도 인식 개인 특성 분석

1. 분석방법 및 범위 55
2. Ordered-response Probit 모형을 이용한 통계검정 56
3. 개인 특성 분석 종합 및 시사점 63

제5장 농업의 다원적 기능 대국민 홍보방안

1. 농업의 다원적 기능 대국민 홍보의 필요성 66
2. 농업·농촌 대국민 홍보 실태 및 문제점 68

3. 농업의 다원적 기능 대국민 홍보 방안	69
제6장 요약 및 결론	79
부록 조사표-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86
참고 문헌	96

표 차 례

제1장

표 1-	1.	선행 연구 표본 선정 및 조사 방법	4
------	----	---------------------------	---

제2장

표 2-	1.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가치 평가액	10
------	----	-------------------------	----

제3장

표 3-	1.	조사 방법 및 대상	20
표 3-	2.	조사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1
표 3-	3.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22
표 3-	4.	농업 및 농촌의 가치 인식	25
표 3-	5.	농업·농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인식	27
표 3-	6.	농업·농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인식	27
표 3-	7.	농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한 의식	30
표 3-	8.	값싼 외국농산물 수입에 대한 의식	32
표 3-	9.	식량자급도 유지 수준에 대한 의식	33
표 3-	10.	분야별 농업정책 지원 수준에 대한 견해	34
표 3-	11.	농업·농촌의 역할 변화에 대한 인식	35
표 3-	12.	지금까지의 농업·농촌의 역할 비교	37
표 3-	13.	향후 중요시될 농업·농촌 역할	38
표 3-	14.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중요도 인식	40
표 3-	15.	농업축소와 식량안보기능의 관계에 대한 의견	41
표 3-	16.	식량안보기능 등 농업 보호 수준에 대한 의견	42

표 3-17. ‘국토 균형발전’ 기능 중 중요도 인식 순 43

표 3-18. ‘고용창출 효과’ 기능 중 중요도 인식 순 44

표 3-19. ‘환경 및 생태계 보전’ 기능 중 중요도 인식 순 44

표 3-20. 농촌의 ‘사회·문화적 기능’에 대한 가치 인식 45

표 3-21. 농촌의 ‘사회·문화적 기능’에 대한 가치인정 이유 ... 46

표 3-22. 농촌 관광과 농촌체험에 대한 관심 정도 47

표 3-23. 다원적 기능 유지 보전을 위한 비용 지불 의사 48

표 3-24. 다원적 기능 유지 보전을 위한 비용 지불 반대 이유49

표 3-25. 다원적 기능 도시민 인식 종합(최빈값 중심) 52

표 3-26. 다원적 기능 계층 간 인식 종합(긍정 평가 중심) 54

제4장

표 4- 1. 변수의 정의 57

표 4- 2. 식량안보 기능 중요도 인식 OPM 적용 결과 58

표 4- 3. 다원적 기능 중요도 인식 OPM 적용 결과 종합 61

표 4- 4. 비용 지불 의사에 대한 OPM 적용 결과 63

제5장

표 5- 1. 다원적 기능 인식 취약계층별 홍보 방안 72

그림 차례

그림 5-1.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홍보 기본 방향	70
그림 5-2.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홍보 기본 전략	71
그림 5-3. 도시민들의 농업 관련 정보 입수 경로	77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문제 제기

농업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주 기능 이외에 사회에 유익한 여러 가지 비시장재화(non-commodity output)를 부수적으로 생산하는데 이와 같이 농업 생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장적, 비시장적 재화가 결합적으로 생산되는 것을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이라 한다.

다원적 기능의 종류는 국가마다 다양한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식량안보, 농촌의 활력증진, 지역 균형발전, 환경 및 생태계 보전, 농업·농촌의 어메니티 보전, 재해경감 등이 중요한 기능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WTO/DDA 농업무역협상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농산물 수입국들이 농업을 보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원적 기능을 국민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농업의 중요성이 과소평가되고 있어 농업발전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

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증진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식 실태를 조사하거나 다원적 기능 가치평가에 초점을 두어,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은 연구가 미흡하였다.

1.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1995년 WTO 체제 출범, 2002년 첫 FTA 협상 타결, 2004년 쌀협상과 WTO/DDA 농업협상 등 일련의 개방농정기를 거쳐 오면서 농업과 농촌에 대한 역할, 특히 국가적으로 보호해야 할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세계 농산물 시장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농업과 농촌은 이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단순 생산개념을 넘어 여러 가지 비시장적 가치를 생산하는 하나의 자원으로 새로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유지·보전하기 위해서는 범국민적인 공감대와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도, 지원 의사 등을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향후 농업·농촌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홍보방안을 강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2.1. 연구의 주요 내용

이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발전과 농업개방에 따른 농업의

역할 변화를 살펴보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종류 및 이론, 또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식과 태도 조사, 농촌의 다원적 기능 유지에 대한 비용 지불 의사와 수준 인식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취약계층을 파악하여 국민의식 증진 및 홍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주요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개념과 다원적 기능의 종류, 국내외 논의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도시민 의식조사 개요와 결과 분석을 다루었으며, 제4장에서는 순서형 프로빗(Ordered response Probit) 모형을 이용해 농업의 다원적 기능들에 대한 도시민 계층간 인식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제5장에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국민 홍보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제6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결과를 제시하였다.

2.2. 연구 방법

2.2.1. 조사 설계

이 연구를 위한 조사 문항은, 농업·농촌에 관한 일반적 인식, 개방화 시대에 농업·농촌의 역할, 농업 및 농촌의 역할 인식 변화,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식, 농업의 다원적 기능 유지 보전을 위한 비용 지불 의사 등으로 설계하였다.

조사 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 조사와 인터넷 조사를 병행하였으며, 조사 대상은 서울을 포함한 전국 6대도시 20세 부터 50

표 1-1. 선행 연구 표본 선정 및 조사 방법

연구기관	내용	표본 선정	비고
농경연(김중숙) 1994	국민의식	서울시내 초중고대학 3개교씩 12개교 유의 선정, 학부모 473명	면접조사
농협조사부 1997	도시민의 농업관	전국광역시 이상 7개 도시 성인 남녀 1,044명	갤럽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위-1999	국민의식	전국광역시 이상 7개 도시 성인 남녀 760명	전화
농협조사부 1999	도시민의 농업관	전국 7대도시 20세 이상 성인 남 녀 760명	전화
농경연(박대식) 1999	국민의식	전국 성인남녀 1,000명 무작위	전화 한국리서치
농경연(오세익) 2001	가치평가	전국 성인남녀 523명	면접조사
농경연(유진채) 2002	조건불리 지역	우편-표본 4,111중 회수 322명 면접- 초중고 학부모 932	전화 및 면접

세 미만의 비농업 종사 성인 남녀 1,000명의 표본을 선정하되, 인터넷 설문조사는 온라인설문 전문 업체의 패널 500명을 활용하였다.

2.2.2. 조사 결과 분석

조사 결과의 통계처리는, 빈도분석과 인구통계적 특징에 따른 교차분석을 통해 피조사자 계층 간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인식차이를 살펴보고, 주요 인식에 대한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효과적인 설문조사와 분석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3. 주요 선행 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이 연구는 1993년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가치평가 연구들과 맥을 같이 하면서 김종숙, 민상기(1994), 박대식, 김정호(1999) 연구의 국민의식 조사 결과와 비교할 수 있도록 문항을 설계하였다.

주요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농업·농촌의 역할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김종숙, 민상기 1994; 박대식, 김정호 1999; 오세익 등 2001)에서는 식량안보 및 환경보전을 중요한 다원적 기능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1997)와 농업인의 날 행사추진위원회(1999)도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업의 역할과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고, 이인우(2000)는 이들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도시민의 농업관 특성 분석 연구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가치평가 관련 연구들(엄기철 등 1993; 오세익 등 1995; 서동균 2000; 서동균 2001)은 대체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 중 환경보전 기능만을 평가하여 다원적 기능 전체를 평가하는데 미흡하였으며 평가방법도 대체법만을 적용하여 평가방법의 적합성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오세익 등(2001)은 가상가치평가법을 적용하여 다원적 기능의 가치를 식량안보, 환경보전, 농업경관 제공, 농촌의 활력 제공 등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농협중앙회(1997)의 연구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44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중소도시 및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원천적으로 배제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박대식, 김정호(1999)의 연구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다른 선행 연구에 비

해서 표본의 대표성이 높았으나 전화 설문조사라는 한계로 인해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심층적으로 조사하지는 못했다.

오세익 등(2001)의 연구는 전국 총 523명의 도시민(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가상순위결정법, 대체법 등으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으나 이 연구는 취약계층의 국민의식 제고방안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조사·연구함에 있어서 표본이 도시 편향적이거나 조사 내용이 너무 일반적(전화조사의 한계 때문)인 경향이 많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전국의 대도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의식을 전화조사와 영상물을 제공한 인터넷 조사를 병행함으로써 농업의 가치에 대한 일반국민의 의식과 홍보 효과 및 조사 방법에 따른 결과의 차이를 살펴보고 대국민 홍보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들과 차별성이 있다.

제 2 장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개념과 논의 동향

1.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개념

농업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주 기능 이외에 국토 균형발전, 농촌고용 증진, 환경보전, 식량안보, 전통문화 계승 발전 등과 같은 비시장재화(non-commodity outputs)를 부수적으로 생산하는데 이와 같이 농업 생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장적(commodity outputs), 비시장적재화가 결합적으로 생산되는 것을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이라 한다.

다원적 기능의 정의에 대해 수출국과 수입국은 견해를 달리 하고 있다. 노르웨이, 핀란드, 스위스, 일본 등 수입국들은 다원적 기능을 광의로 해석하여 자국의 농업보호를 위한 논리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수출국들은 농업에는 환경오염 등 부정적 기능도 있으며, 다원적 기능을 빌미로 국제교역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OECD는 양쪽의 입장을 모두 수용하여 생산측면의 결합성뿐 아니

라 분배측면의 시장실패까지도 다원적 기능의 전제조건으로 포함하여 보다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1.1. 다원적 기능의 특성

다원적 기능의 특징으로 첫째, 결합생산성을 들 수 있는데 결합생산성이란 한 가지 이상의 투입물로 두 가지 이상의 산출물을 생산하는 경우로 쌀을 생산할 때 벼짚, 쇠고기를 생산할 때 소가죽이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경우 등을 말한다.

다원적 기능은 농산물과 결합적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원적 기능은 농업 이외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공급될 수 있으나 이 경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예를 들면 농업의 홍수방지 기능은 홍수방지 댐을 건설함으로써 대체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댐 건설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둘째, 공공재와 외부효과로 공공재(public good)란 소비의 배제성과 경합성이 없어 소유권이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예를 들면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 같은 것으로, 일단 다원적 기능이 생산되면 누구나 언제든지 아무런 대가없이 그 기능을 향유할 수 있다. 따라서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소득이 없으며 이러한 특성을 가진 재화의 공급은 항상 사회적 최적보다 적게 된다.

또 외부효과(externality)란 한 개인의 행동이 시장 메커니즘을 거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효용이나 생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농업인들이 생산한 다원적 기능은 아무런 대가없이 일반국민들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정(正)의 외부효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시장실패를 들 수 있는데 다원적 기능은 공공재, 외부효과 등과 같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부재 또는 불완전한 시장이 형성되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발생한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국

가와 사회유지에 필요한 공공재로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나 시장의 부재로 가격이 형성되지 않아 제대로 대가를 받지 못하고 따라서 이러한 재화의 생산은 사회적 최적(social optimum)에 이르지 못한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재화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보조금 지급으로 민간의 생산을 장려하거나 정부의 직접적인 공급 등 정부의 개입을 권장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선진국에서는 직접지불을 통해 다원적 기능의 생산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2. 다원적 기능의 종류와 중요성

우리나라 농업의 다원적 가치는 연간 28조 3,700억원 내외로 추산되고 있어 농업GDP의 1.4배, 재배업GDP의 1.7배에 달한다. 이것은 농업의 경제외적 효과가 경제적 효과보다 훨씬 더 크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평가액은 평가방법의 문제, 평가자에 따른 차이, 일부 중복(overlapping) 등의 문제로 과대평가란 비판도 있지만 농업을 유지함으로써 덤으로 얻는 가치라는 점(결합생산성)에서 의미가 크다. 농업을 포기할 경우 이러한 가치도 사라지며 인위적으로 이러한 기능을 창출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어메니티 수요도 증가하기 때문에 농촌 경관, 정서함양, 휴양, 레크리에이션 등 농촌 어메니티에 관련된 가치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종합 연구 이외에 개별기능에 대한 가치평가 연구도 활발한데, 이희찬(2002)의 연구에서는 조건불리지역의 공익적 가치를 연간 1조 3,086억원으로 추산하였으며, 임정빈(2003)은 식량안보의 편익을 연간 1조 6,656억원으로 추산하였다.

표 2-1.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가치 평가액

단위: 억원/년

구 분		농업·농촌	산림	평가방법
농촌활력 제고		8,165	NA	CVM
지역균형 발전		16,676	NA	
환경 및 생태계 보전	지하수함양*	41,572	-	RCM
	수질정화	21,910	48,269	
	대기정화	55,889	133,754	
	토양 유실 경감	9,520	100,560	
	야생동물 보호	NA	7,680	
농촌 어메니티 보전	농촌경관	40,316	NA	CVM
	정서함양	21,514	NA	
	진통문화	16,093	NA	
	휴양 및 여가	12,218	48,300	
재해경감	홍수예방	22,814	132,990	RCM
	산사태방지	-	26,360	
식량안보		17,084	-	CVM
총 계 (A)		283,771	497,913	
농업GDP (B)		205,848		
재배업GDP (C)		168,197		
A/B (배)		1.37		
A/C (배)		1.69		

* 홍수 조절 효과에 포함하여 산출.

자료: 『농업·농촌종합대책 실천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4).

2.1. 농촌의 활력증진과 지역 균형발전

농업은 농촌에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을 창출하고 농촌에 사람이 살게 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SOC의 유지·보전 등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한다.

2003년 말 현재 전국의 농가호수는 126만호, 여기에서 일하는 취

업자 수는 194만명(총 취업자의 9.3%)이며 이들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연간 20.5조원에 달한다. 2013년에는 농가호수는 89만호, 취업자 수는 141만 명으로 감소하여 농업 부문의 일자리가 53만개 줄어들 것이며 쌀 협상 및 DDA협상에 따라 일자리 감소 폭은 더욱 커질수도 있다.

이것은 참여정부의 2004년도 일자리 창출목표(30~35만개)의 1.5~1.7배에 달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IT화, 노사대립, 임금인상, 공장의 해외이주 등으로 경제가 위축되고 있으며 실업자 수도 80만 명을 넘고 있다. 또한 농업과 수직적, 수평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전후방 산업을 포함하면 농업에 의한 일자리 창출효과는 전체 취업자의 20%에 달한다.

고용창출 효과는 농촌공업화, 서비스 산업 유치 등 비농업적인 방법으로도 달성할 수 있으나 추가적인 비용이 들고 고용의 안정성 및 광역성을 고려할 때 농업에 의한 방법보다 훨씬 비효율적이다. 실제로 2003년도 실업대책으로 2조 2,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2004년도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8,600억원이 집행되었으나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거의 없었다.

농촌은 도시에 비해 고용기회가 적고 농업인들의 교육수준, 연령 등 여러 요인들 때문에 비농업 분야 취업이 어렵다. 따라서 농업고용의 효율성, 안정성, 지속성, 광역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농업의 고용효과는 매우 중요한 다원적 기능임을 알 수 있다.

농업은 인구를 전 국토에 분산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면서 농촌지역의 SOC 보호, 기초생활 편의시설의 최소시장 확보, 국토유실 방지 등 여러 가지 지역사회 발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농업의 이러한 기능이 없다면 도시 과밀화로 인한 교통, 범죄, 주택, 교육 문제뿐만 아니라 산사태, 도로 및 교량유실, 지역사회 공동화 등으로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OECD도 1999년 농업각료회의를 통해 농촌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위해 적절한 농업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으며 노르웨이, 스위스, 핀란드 등 산악국가들은 농업의 국토보전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이농향도(Out-migration) 영향으로 농촌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농업을 적당수준 유지하여 다원적 기능을 극대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2.2. 환경 및 생태계 보전

농업은 농업 생산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환경보전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수자원 함양 기능을 들 수 있는데, 논밭은 강우 시 빗물을 지하로 침투시켜 지하수를 함양한다. 지하수는 먹는 물로 활용되는 동시에 하천의 유량을 유지시키는 데 그 양은 연간 60억 톤으로 전국 수돗물 사용량보다 많다.

둘째, 토양 유실 경감 기능을 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경사지가 많아 집중호우 시 토양 유실이 많다. 암석이 풍화하여 1cm의 흙이 될 때까지는 200년이 소요되는데 우리나라는 연간 약 0.4cm의 흙이 유실되고 있다. 또한 토양이 유실되면 토양입자에 흡착되어 있던 비료성분이 함께 없어져 토양이 척박해지는 것은 물론 그 비료성분으로 하천이 오염된다.

토양 유실은 대부분 밭에서 일어나는데 논은 상부에서 흘러내리는 흙을 받아 유실을 방지한다. 이렇게 유실 방지되는 흙의 양은 연간 1.8억 톤에 달하는데, 이것은 5톤 트럭 3,600만대 분이며 한 줄로 세워 놓으면 서울-부산 간을 200번 왕복하는 거리이다.

셋째, 수질 정화 기능으로, 농업용으로 쓰는 관개수는 질소, 인산, 유기물 등 각종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어 하천 및 호수의 부영양화의

원인이 된다. 이 물은 논·밭에 머무는 동안 농작물에 의하여 흡수되거나 토양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깨끗하게 정화되는데, 이렇게 농업에 의해 정화되는 오염물질은 연간 7억 톤에 달한다.

넷째, 대기정화 기능을 들 수 있는데, 농업과 산림은 광합성을 통해 탄산가스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며 질산 및 유황화합물을 흡수함으로써 대기를 정화한다.

산업발달로 인한 에너지 소비와 자동차 매연 등으로 탄산가스 및 여러 가지 유해 가스가 발생해 이를 정화할 수 있는 농림업의 대기정화 기능이 중요한데, 농업의 대기정화 기능은 연간 탄산가스 흡수 2,160만 톤, 산소방출 1,560만 톤에 달한다.

다섯째, 농업은 가축 분뇨, 음식찌꺼기, 각종 쓰레기 등을 퇴비로 만들어 소비함으로써 폐기물 처리 기능을 수행하는데, 연간 처리능력은 1,760만 톤에 달한다.

농업은 또한 미세 동식물, 곤충류, 포유류 등 야생 생태계를 유지·보전한다. 이러한 기능은 천적의 확보, 외래 병해충에 대한 완충 역할, 생물학적 다양성 확보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생물다양성은 최근 생명공학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품종 및 작물을 생성하는 데 중요한 유전자 자원(Gene source)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따라서 세계 각국은 생물다양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APEC 농업기술협력위원회는 농업생명공학 분과를 두고 각국의 생물다양성 유지·보전 및 활용 등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유전자 은행을 만들어 세계 각국의 유전자들을 수집·보전하고 있다. 이처럼 생태계 보전의 잠재가치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농업은 자연 상태에서 여러 가지 유전자를 확보·보전한다는 의미에서 그 가치가 매우 크다.

2.3. 농촌의 어메니티 보전

농업은 녹색경관, 도시인들의 휴식 및 레크리에이션 공간 제공, 도시 어린이들의 정서함양 등 자연적, 문화적, 심미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민속놀이, 민속춤, 전통음악, 전설 등 대부분의 전통문화는 농업에서 유래된 것이 많으며 따라서 농업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한다.

최근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됨에 따라 5都2村 현상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따라서 농촌의 어메니티는 농외소득을 제고할 수 있는 귀중한 자원이다. 일반적으로 어메니티 수요는 소득증진과 정비례하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의 어메니티 보전 기능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2.4. 재해 경감

우리나라는 여름철 집중호우가 많아 홍수위험이 매우 큰데, 논둑은 강우 때 빗물을 저장하여 거대한 댐·저수지 역할을 하며 산림과 밭도 빗물을 흡수하여 홍수를 예방한다.

집중호우 시 저장되는 빗물은 연간 약 34억 톤으로 팔당댐 저수량의 14배에 달하고, 산림의 홍수 조절 능력은 193억 톤으로 농업의 5.7배에 달한다.

1996년도 파주, 문산 지역의 홍수는 인근 농경지와 야산을 개발하여 논·밭의 저수 능력이 떨어진 것이 주원인으로 밝혀진 바 있다. 또한 논·밭과 산림을 통하여 지하로 침투된 물은 지하수를 충전함으로써 지반침하를 방지한다.

바닷가 논·밭 또는 과수원 주변에 있는 방풍림은 태풍의 피해를 경감시킨다. 2003년 태풍 ‘매미’ 때 남부 해안지대는 강풍으로 큰 손해를 입었는데 경남 남해군 일부 마을은 바닷가에 방풍림이 잘 발달

해 있어 전혀 피해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2.5. 식량안보

식량안보란 건강하고 활력적인 삶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언제든지, 경제적·물리적으로 충분하고, 안전하고, 영양가있는, 식량을 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FAO 1996).

식량안보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가용한 식량의 확보(availability), 식량 공급의 안정성(stability) 및 식량에 대한 접근성(accessibility)이 매우 중요하다(OECD).

1996년 ‘로마 선언’에서는 모든 국가는 경제적, 정치적, 계절적 영향에 구애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국민의 식량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국의 농업 생산 증대, 적절한 재고관리 및 국제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FAO/World Food Summit).

식량수출국들(미국, 호주, 캐나다, 태국 등)은 식량안보는 국제무역에 의해서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점, 식량안보는 농업 생산과 결합성이 약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식량안보는 다원적 기능에 속하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식량 순수입국들(한국, 일본, 대만, 스위스, 노르웨이 등)은 식량은 자국의 안보와 직결된 문제이고 최근 국제정세의 불안, 잦은 기상이변 등 때문에 자국의 식량안보를 타국에 의존할 수 없다는 입장이 강하다(일본은 식량자급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

식량안보와 함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식량안전성(food safety)은 잔류농약 위험성이 있는 농산물, 유전자변형농산물(GMOs),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호르몬이 주입된 농산물 수입으로 야기되는 잠재적인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최근 농산물의 국제교역량이 증가하면서 광우병, 가금 인플루엔자, O157, 수입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출, 위장 원산지 표시 등 식품

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국제적인 이슈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수입 농산물에 대한 검역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며 자국의 식품안전성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원산지 표시 등 관련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소비자들은 안전성 문제 때문에 자국의 농산물을 선호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관점에서도 식량안보는 중요하다.

이처럼 식량안보란 잠재적인 위기발생 시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일종의 보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쌀은 과잉 기조에 돌입했지만 아직도 전체곡물의 70%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처도 주로 미국과 중국 두 나라에 의존하고 있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의 곡물 자급률이 100%를 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는 취약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중단립종 쌀은 국제교역량이 적고 세계 5대 곡물 메이저가 독점하고 있어 국제곡물사정이 어려워질 때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이 제한적이다. 또한 남북통일 대비, 생산기반의 비가역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면 최소한 주곡만큼은 국내 생산을 통해 공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경지면적의 감소, 식량자급률 저하, 국제미곡시장의 불안, 남북통일 대비, 빈곤층 급식지원 등 식량안보 위해 요소들이 많다. 식량안보는 미래 생산성의 향상과 지역 안정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의 전제조건이라는 FAO(2000)의 입장을 감안할 때 식량안보를 위하여 자국의 농업을 일정 수준까지 유지·발전시키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정당성을 가진다(노르웨이 농림부 1999).

3.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내외 논의동향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 말 오스트리아에서 처음 시작하여 1990년대 초에는 EU의 정책토론의 장으로 확산되었다. 1992년 리우 회의(Agenda 21 10장 및 14장)에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 특히 식량안보, 지속가능 농업, 농지관리 및 농촌개발을 위한 각국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FAO는 1996년 세계 식량정상회담(The World Food Summit)에서 로마선언을 통해 다원적 기능의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OECD는 1997년도 농정평가보고서에 1996년 세계 식량정상회담 논의 내용을 수용하였다. 이어 1998년 농업각료회의에서 다원적 기능의 개념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각료 선언문에 다원적 기능의 확보를 회원국들의 공동목표로 채택하였으며 1999-2002년까지 이에 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WTO 농업협정 서문 및 제20조는 농산물 무역자유화 협상 과정에서 식량안보, 환경보전 등 비교역적 기능(NTC)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고 이는 2001년 DDA(Doha Development Agenda)에서 계승되고 있다. 2004년 DDA 오쉬마 초안에는 다원적 기능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소수 NTC 품목에는 관세상한 예외 가능성 시사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도 농업·농촌기본법에 식량안보, 환경보전, 전통문화, 생활공간 등 경제적·공익적 기능이 농업에 의해 제공됨을 인정하고 그의 지속적인 개발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선언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구속력이 없으며 시행령, 시행규칙 등 실천방안을 담고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시행되기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제 3 장

농업의 다원적 기능 도시민 의식 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1.1. 조사 목적 및 조사 내용

세계무역기구(WTO) 도하라운드(DDA) 농업협상과 쌀 관세화 협상, 그리고 자유무역협정(FTA) 논의 확대 등 1994년 우르과이라운드(UR) 출범 이후 농업개방과 관련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내외적으로 농업을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 하는 국민적 합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도하라운드 농업협상으로 농산물 시장의 추가적인 개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농업을 보호하고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홍보방안 마련을 위해 도시민의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인식과 농업의 보호를 위한 지원 수준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조사 내용은, 도시민들의 농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최근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농업개방과 관련한 태도, 그리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 전반에 대한 중요도 인식 및 각 기능별 중요도 인식, 그리고 이를 유지하고 발전 시키기 위한 비용 지불의사, 정책지원 수준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설문 문항은, 조사 대상자의 특성 파악을 위한 선문 4문항과 배문 5문항, 농업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파악을 위한 9문항,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의식 및 비용 지불 의사와 정책 지원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9문항 등 총 27문항을 설계하였다.

1.2. 조사 방법

조사는 리서치 전문기관인 (주)엠브레인에 의뢰해 2004년 7월 19일부터 7월22일 사이에 실시되었으며, 조사 대상은 6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 거주하는 만 20세~49세 성인 남녀 중 비농업인 1,000명을 선정하였다.

조사 방법은 총 대상자 1,000명 중 500명은 전화면접 조사로, 나머지 500명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인터넷 온라인 조사로 실시하였으며, 인터넷 온라인 조사에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홍보영상물 44초분과 1분29초분 2개의 영상물을 시청케 한 후 조사하였다.

표본 추출은 지역, 성, 연령에 의한 임의할당 추출법(Purposive Quota Sampling)을 사용하였으며, 표본 수 및 표본 구성은 1999년 인구센서스 자료를 기초로 삼아 총 1,000명을 선정, 신뢰수준 95%에 최대 허용오차 $\pm 3.09\%$ 이다.

표 3-1. 조사 방법 및 대상

구분	전화 조사	온라인 조사
조사지역	-서울 포함 전국 6대광역시(서울,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 -서울 지역은 강남과 강북 구분	
조사 대상	-도시민 -20~49세 남녀 -총 500명	-도시민 -20~49세 남녀 -총 500명
조사 특이사항	-농업의 다원적 기능 사전 교육 없이 일반적인 이해 기준으로 조사	-다원적 기능에 대한 영상물 상영 후 (전반적인 소개 44초분, 다원적 기능 소개 1분29초분) 조사

1.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에는 통계프로그램인 SAS 8.0 및 SPSS 10.0을 이용했으며, 빈도, 교차분석 등의 통계기법이 사용되었다. 각 문항에 대한 변인별 교차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 검정은 카이스퀘어 검정을 실시하였다.

1.4. 조사응답자 특성

이 조사에 응한 응답자 1,000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서울 지역 거주(47.3%) 30대(36.5%), 350만원 이상의 월 소득을 가진 계층(32.2%)에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75.3%)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농촌생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와 없다는 응답자가 각 50%로 같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부모나 형제 중 농업종사자 유무는 종사하지 않는다는 응답(66.0%)이 종사한다는 응답(34.0%)의 2배에 가까웠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20대가 34.8%, 30대 36.5%, 40대 28.7% 순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자와 여자가 각 49.3%, 50.7%로 유사한 분포로 나타났다.

월 소득 규모별로는, 35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이 32.2%로 가장 높

은 빈도를 보였으며, 150만원 미만은 12.9%에 그쳤고, 과반수인 52.1%는 150만원부터 350만원 미만에 분포하였다. 학력은 전문대졸 업자를 포함한 대졸 이상이 75.3%, 고졸 이하가 24.5%로 나타나 비교적 고학력에 편중되었다. 이것은 인터넷 조사자 중에 고학력자가 많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¹

표 3-2. 조사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구 분	내 용	비 율
연령	20대	34.8
	30대	36.5
	40대	28.7
성별	남자	49.3
	여자	50.7
월소득	150 만원 미만	12.9
	150~250 만원 미만	25.0
	250~350 만원 미만	27.1
	350 만원 이상	32.2
	무응답	2.8
최종학력	고졸 이하	24.5
	대졸 이상(전문 대학 포함)	75.3
	무응답	0.2
농촌 생활 경험 유무	있다	50.0
	없다	50.0
가족농업 종사여부	종사	34.0
	비종사	66.0

¹ 조사에 응하는 도시민에게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홍보 동영상 자료를 사용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인터넷 조사는 조사 전문기관의 패널을 이용하였다. 표본은 이들 패널 25만여명 중에서 샘플링 하였으며, 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패널 특성으로 말미암아 고학력 고소득 표본이 상대적으로 많이 추출되는 편기현상을 보였다.

2. 조사결과 분석

2.1. 농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인식

2.1.1. 농업의 중요성 인식

도시민들이 생각하는 농업 전반에 대한 중요성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농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도시민 84.2%는 ‘지금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12.3%는 ‘지금까지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중요할 것’이라고 응답해 거의 대다수인 96.5%가 농업의 역할이 국가경제에 중요한 부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표 3-3.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 분	연령대			전체
	20대	30대	40대	
지금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다	274 (78.7)	308 (84.4)	260 (90.6)	842 (84.2)
지금까지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중요할 것이다	63 (18.1)	41 (11.2)	19 (6.6)	123 (12.3)
지금까지도 중요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중요치 않을 것이다	7 (2.0)	12 (3.3)	7 (2.4)	26 (2.6)
관심 있게 보지 않아 잘 모르겠다	4 (1.1)	4 (1.1)	1 (0.3)	9 (0.9)
계	348(100.0)	365(100.0)	287(100.0)	1000(100.0)

$$\chi^2=22.54, DF=6, P < .001$$

‘지금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라는 적극적인 중요성 인식의 계층 간 차이는 먼저 연령대 별로는, 긍정적인 인식이 20대(78.7%), 30대(84.4%), 40대(90.6%) 순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나 연령대와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간에 높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86.0%)가 남자(82.4%)보다 중요도 인식이 높았고, 소득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인식이 뚜렷해 월 소득 50만원 미만(70.7%)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증가해 월소득 450만원 이상 계층에서(92.9%)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중학교 졸업 이하의 저학력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이 높았다. 결과적으로 농업의 중요성 인식에서는 20대와 남자, 저소득층, 고학력층이 취약계층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이 같은 조사 결과는 박대식, 김정호(1999)의 선행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도시민 77.5%는 ‘농업은 국가경제에서 근본이 되는 산업’이라는 응답결과가 나왔으며, ‘농사가 잘못되면 국가경제 전체가 잘못될 가능성이 높은가’라는 질문에도 74.3%가 찬성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서도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 98.5%가 인정한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²

이처럼 도시민의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수년간 큰 변화없이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젊은 세대(20대)와 기성세대(40대) 간의 농업 중요도 인식 격차는 줄지 않고 유지되어 오고 있어 장래 우리 사회의 주역이자 농업의 수요자 중심으로 성장할 20대 계

² 이 조사는 전국 7대 도시 성인 남녀 76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실시하였다.

층에 대한 인식제고 노력과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1.2. 농업 및 농촌의 가치 인식

농업·농촌에 대한 가치인식에 대해서는, 초·중·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농촌체험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89.7%가 매우 또는 대체로 찬성한다고 응답해(5점 만점에 4.4점) 긍정적인 인식이 뚜렷하였다. 연령대 별로는 30대(92.9%)가 가장 긍정적인 인식이 높고, 가족이 농사에 종사한다는 계층에서(91.1%) 종사하지 않는다는 계층(88.9%)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이같은 차이에 유의성은 없었다.

농사가 잘못되면 국가경제 전체가 잘못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시에 대해서는 75.3%가 ‘매우’ 또는 ‘대체로 그럴 것’이라고 응답하였다(5점 만점에 평균 4.0점). 연령대 별로는 역시 나이가 많은 집단일 수록, 성별로는 여자(78.9%)가 남자(71.6%)보다, 가족이 농사에 종사한다는 응답자(80.0%)가 종사하지 않는다는 응답자(72.9%)보다 농업의 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별로는 저소득과 고소득 계층 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농업의 국가경제에 대한 역할인식은 박대식·김정호(1999)의 연구에서도 ‘매우’ 또는 ‘대체로’ 중요성에 동의한 비율이 74.3%로 나타나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계층 간 인식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³

노후생활을 농촌에서 보낼 의향에 대해서는 63.1%만 ‘매우’ 또는 ‘대체로 찬성’하고 있는데, 이들을 계층별로 보면 20~30대 보다 40대 계층에서 뚜렷했고, 성별로는 남자(68.5%)가 여자(57.8%)보다, 농

³ 이 연구에서도 계층별로 여자가 남자보다, 연령이 높을수록 농사가 잘못되면 국가경제 전체가 잘못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촌생활 경험은 있는 계층(72.0%)이 없는 계층(54.2%)보다, 가족 농사 종사 여부는 종사한다는 계층이(75.3%) 종사하지 않는다는 계층(56.8%)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학력별로도 뚜렷한 차이를 보여 학력이 낮을수록 긍정적인 인식 비율이 높아 대학 졸업자 이상(61.6%) 계층과 초등학교 졸업 이하(87.5%) 계층 간에 긍정적인 인식 비율이 25.9%p의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소득별로는 저소득과 고소득 계층 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식이 원한다면 농업에 종사하도록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37.5%의 응답자만 ‘매우’ 또는 ‘대체로 찬성’하였으며, ‘매우’ 또는 ‘대체로 반대’한다는 의견도 30.7%로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가중평균값이 3.1점으로 4개 항목 중 가장 낮은 인식 수준을 보였다.

찬성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응답을 계층별로 살펴보면, 연령은 계층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성별은 여자(34.5%)가 남자(26.8%)보다, 가족이 농사에 종사하지 않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부

표 3-4. 농업 및 농촌의 가치 인식

단위: %

구 분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반대	매우 반대	모름	점수
교과 과정에서 농촌체험을 포함시킨다면	52.1	37.6	8.6	1.5	0.2	0.0	4.4
농사가 잘못되면 국가경제 전체가 잘못될 가능성이 높다	33.1	42.2	18.9	5.0	0.7	0.1	4.0
노후생활을 농촌에서 보낼 의향이 있다	27.1	36.0	20.5	12.4	4.0	0.0	3.7
자식이 원한다면 농업에 종사하도록 하겠다	7.6	29.9	31.7	22.8	7.9	0.1	3.1

주: 점수는 5점 만점의 가중평균임(매우찬성 5, 매우반대 1).

정적인 인식 비율이 높았다. 또, 소득별로는 대체로 고소득일수록, 학력은 고학력일수록 부정적인 인식 비율이 높았다.

이같이 자식의 농업종사에 대한 찬성 여부는 박대식, 김정호(1999)의 선행 연구에서도 조사된 바 있는데, 이 조사에서는 ‘아주 반대’ 10.9%, ‘대체로 반대’ 11.8%, ‘그저그렇다’ 14.0%, ‘대체로 찬성’ 39.1%, ‘아주 찬성’ 24.0%로 전체 응답자의 63.1%가 자식이 원한다면 농업에 종사하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지난 5년간 자식의 농업종사에 대한 도시민들의 찬성 비율은 63.1%(1999년)→37.5%(2004년)로 무려 25.6%p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도시민들의 농업관에 상당한 변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농업·농촌의 가치와 중요도 인식이 수년간 큰 변화가 없었던 점으로 미뤄 농업과 농촌 생활에 대한 호감도는 상대적으로 크게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1.3. 농촌 이미지에 대한 인식

도시민들이 농촌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으로 나눠 질문한 결과에서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조용하고 전원생활을 할 수 있는 곳’(33.4%)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는 ‘인정이 풍부하고 마을 축제 등 전통적인 풍습이 남아 있는 곳’(23.2%), ‘자연경관이 보전되는 곳’(16.4%), ‘정서, 휴양, 교육적인 가치가 있는 곳’(14.9%),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곳’(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용하고 전원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을 꼽은 계층은 동영상 시청한 집단이(42.2%) 시청하지 않은 집단(24.6%)보다 높아 농촌홍보 동영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20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표 3-5. 농업·농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인식

단위: 명(%)

구 분	연령대			전체
	20대	30대	40대	
조용하고 전원생활을 할 수 있는 곳	136 (39.1)	114 (31.2)	84 (29.3)	334 (33.4)
인정이 풍부하고 마을 축제 등 전통적인 풍속이 남아 있는 곳	85 (24.4)	83 (22.7)	64 (22.3)	232 (23.2)
자연경관이 보전되는 곳	44 (12.6)	73 (20.0)	47 (16.4)	164 (16.4)
정서, 휴양, 교육적인 가치가 있는 곳	53 (15.2)	48 (13.2)	48 (16.7)	149 (14.9)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는 곳	15 (4.3)	27 (7.4)	28 (9.8)	70 (7.0)
재해예방과 환경보전의 기능이 있는 곳	15 (4.3)	19 (5.2)	16 (5.6)	50 (5.0)
모름	0 (0.0)	1 (0.3)	0 (0.0)	1 (0.1)
계	348(100.0)	365(100.0)	287(100.0)	1,000(100.0)

 $\chi^2 = 22.08, DF=12, p < .037$

표 3-6. 농업·농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인식

단위: 명(%)

구 분	연령대			전체
	20대	30대	40대	
문화, 보건, 의료, 교육 등 복지시설이 미흡한 곳	187 (53.7)	219 (60.0)	158 (55.1)	564 (56.4)
도시에 비해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	97 (27.9)	64 (17.5)	55 (19.2)	216 (21.6)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곳	22 (6.3)	43 (11.8)	36 (12.5)	101 (10.1)
비전이 없는 곳	15 (4.3)	18 (4.9)	18 (6.3)	51 (5.1)
자연재해와 병충해가 되풀이되는 곳	14 (4.0)	12 (3.3)	10 (3.5)	36 (3.6)
지저분하고 환경이 오염되어 있는 곳	10 (2.9)	9 (2.5)	10 (3.5)	29 (2.9)
모름	3 (0.9)	0 (0.0)	0 (0.0)	3 (0.3)
계	348(100.0)	365(100.0)	287(100.0)	1,000(100.0)

 $\chi^2 = 26.62, DF=12, P < .009$

부정적인 이미지에 대해서는, ‘문화, 보건, 의료, 교육 등 복지시설이 미흡한 곳’을 가장 많이(56.4%) 꼽았으며, 다음으로 ‘도시에 비해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21.6%),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곳’(10.1%), ‘비전이 없는 곳’(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연재해와 병충해가 되풀이되는 곳’, ‘지저분하고 환경이 오염되어 있는 곳’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연령대별 인식은 복지시설이 미흡하다는 인식은 30대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는 인식은 20대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곳’, ‘비전이 없는 곳’이라는 응답 비율은 40대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변인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2.1.4. 농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한 인식

세계무역기구(WTO) 농산물 시장개방 협상과 자유무역협정(FTA), 쌀 시장 추가개방 협상 등 일련의 농업시장 개방 논의와 관련해 도시민 75.0%는 ‘농산물 시장은 이미 지나치게 개방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4.1%에 그쳤다.

‘농산물 시장이 지나치게 개방되었다’는 동의 비율은 20대보다 30, 40대가 높게 나타났고, 남자(71.4%)보다는 여자(78.5%)가 높게 나타났다. 농촌생활 경험자와 가족 중 농사에 종사하는 응답자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동의 비율이 높았다. 학력과 소득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농산물 시장이 더 개방되면 농가와 농촌경제가 더 어려워 질 것’이라는 가정에는 88.3%가 동의하였다. 동의한다는 응답은 20대 젊은 계층보다 30, 40대가 높게 나타났고, 남자(85.8%)보다는 여자가

(90.7%) 역시 높게 나타났다. 다른 부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모든 국가는 국민의 식량안보를 위하여 최대한 농업을 보호하고 지킬 책임이 있다’는 예시에는 95.3%가 동의하였으며, 동의한다는 응답 비율은 20대 보다 30, 40대에서, 남자보다 여자가, 저소득층일수록, 학력이 낮은 계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UR협상 때와는 달리 WTO 협상에서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막아야 한다’는 예시에는, 70.9%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19.5%로 집계되었다. 계층별로 동의한다는 응답은 연령대 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며, 남자(65.3%)보다 여자(76.3%)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가족중 농사에 종사한다는 응답자의 동의 비율(74.4%)이 종사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동의 비율(69.1%)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력과 소득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1999년 조사한 결과와⁴ 유사한 비율로 나타남으로써 농산물 시장개방과 관련한 도시민 의식은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UR협상 때와는 달리 이번 WTO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농산물 시장의 추가개방을 막아야한다’는 데에는 ‘동의한다’는 비율이 13.0%p(99년 조사 83.9%→본 조사 70.9%) 정도 낮아져(‘모름’ 항목은 9.6%임) 농산물시장 추가 개방에 대해 도시민들은 어느 정도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또, 본 연구와 유사한 시기인 2004년 8월3일부터 8월10일까지 7일간 우리쌀지킴이 식량주권수호 국민운동본부가 전농 전북도 연맹에

⁴ 2000. “도시민의 농업관 연구”. 「농협조사월보」 508호, 전국 7대도시 성인남녀 760명 대상 조사 결과.

의뢰해 실시한 ‘농업·농촌·쌀에 대한 전국 도시민 의식조사’ 결과⁵에서는 ‘농산물 시장은 이미 지나치게 개방되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동의한다는 비율은 62.6%로 집계되어 이 연구의 75.0%보다 12.4% 정도 낮게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매우 포함)는 응답은 10%에 지나지 않았으며, 나머지 27.4%는 ‘보통’으로 대답해 동의한다는 응답 비율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의 3배에 가깝게 나타났다.

표 3-7. 농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한 의식

단위: %

구 분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모름
	2004년 본연구	1999년 농협	2004년 본연구	1999년 농협	
농산물시장은 이미 지나치게 개방되었다	75.0	74.9	24.1	23.8	0.9
농산물시장이 더 개방되면 농가와 농촌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88.3	86.5	11.7	13.3	0
모든 국가는 국민의 식량안보를 위해 최대한 농업을 보호하고 지킬 책임이 있다	95.3	97.0	4.7	2.9	0
UR 협상 때와는 달리 이번 WTO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농산물 시장의 추가개방을 막아야한다	70.9	83.9	19.5	14.9	9.6

⁵ 이 사례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이 전국 7대 대도시 거주 20세 이상 비농민 남녀 1,6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조사 결과이다.

농산물이 국내산보다 외국산이 더 쌀 경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반수가 넘는 62.7%가 ‘국내산이 외국산보다 비싸더라도 쌀과 같은 기본식량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해 기본식량의 자급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국내산이 외국산보다 비싸더라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좋다’는 적극적인 보호 의사를 가진 의견이 30.6%로 나타났고, ‘국내산보다 외국산이 더 싼 농산물은 수입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5.6%에 그쳤다.

‘국내산이 외국산보다 비싸더라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좋다’는 적극적인 보호 의사를 가진 의견 비중은 남자(28.6%)보다 여자(32.5%)가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농촌경험이 있는 계층과 가족이 농사에 종사하는 계층에서 농촌경험과 가족의 농사 종사에 해당 없는 계층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력과 소득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김종숙·민상기(1994) 연구 결과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산이 외국산보다 비싸더라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좋다’는 적극적 보호의견은 60.6%(1994)→30.6%(본조사)로 절반 가까이 줄었고, ‘국내산이 외국산보다 비싸더라도, 쌀과 같은 기본식량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좋다’는 다소 현실적인 의견은 34.9%(1994)→62.7%(본조사)로 나타남으로써 도시민들은 무조건적인 보호가 아니라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보호 수준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박대식, 김정호(1999) 연구에서도 본 연구와 거의 유사한 비율로 나타나 결국 지난 5년간의 외국산 농산물 수입과 관련한 도시민들의 의식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값싼 외국농산물 수입에 대한 의식

단위: 명(%)

구 분	2004 본연구	1999 박대식	1994 김종숙
국내산보다 외국산이 더 싼 농산물은 수입하는 것이 좋다	56 (5.6)	52 (5.2)	14 (3.0)
국내산이 외국산보다 비싸더라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좋다	306 (30.6)	309 (30.9)	287 (60.6)
국내산이 외국산보다 비싸더라도, 쌀과 같은 기본식량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좋다	627 (62.7)	625 (62.5)	165 (34.9)
잘 모르겠다	11 (1.1)	14 (1.4)	7 (1.5)
계	1,000(100.0)	1,000(100.0)	473(100.0)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식량자급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1.5%가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식량자급도를 훨씬 더 높여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현재 수준의 식량자급도를 유지하면 된다’는 응답은 22.9%였다.

식량자급도를 훨씬 더 높여야 한다는 응답은 홍보 동영상 시청 집단이 78.0%, 비시청 집단이 65.0%로 홍보물을 시청한 계층에서 자급도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낮은 연령대일수록 식량자급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가(75.3%) 남자(67.5%)보다 자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고, 가족이 농사에 종사하는 집단이 종사하지 않는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소득과 학력 계층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식량자급도 유지 수준에 대한 의식은 김종숙, 민상기(1994)와 박대식, 김정호(1999)의 연구에서도 조사된 바 있는데, 이들 선행 연구

표 3-9. 식량자급도 유지 수준에 대한 의식

단위: 명(%)

구 분	본연구 2004	박대식·김정호 1999	김종숙·민상기 1994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식량자급도를 훨씬 더 높여야	715 (71.5)	708 (70.8)	261 (55.7)
현재 수준의 식량자급도를 유 지하면 된다	229 (22.9)	200 (20.0)	175 (37.3)
외국에서 값싼 식량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식량자급도를 높 이려 할 필요는 없다	41 (4.1)	58 (5.8)	21 (4.5)
잘 모르겠다	15 (1.5)	34 (3.4)	12 (2.6)
계	1,000(100.0)	1,000(100.0)	469(100.0)

와 이 연구는 식량자급도에 대한 도시민들의 의식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즉,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식량자급도를 훨씬 더 높여야’ 한다는 적극적인 견해가 1994년 55.7% →1999년 70.8% →2004년 71.5%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민들은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될수록 식량자급도에 대한 중요도 인식을 높게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1.5. 농업의 정책지원 수준에 대한 견해

식량자급률, 식품안전, 도-농 소득격차, 교육 문화 복지확충 등 농업에 대한 세부 정책 지원의 수준에 대해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교육 문화 복지확충이 90.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도-농간 소득격차(84.8%), 식품안전성 강화(84.3%), 식량자급률 향상(7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0. 분야별 농업정책 지원 수준에 대한 견해

단위: %

구분	지금이 적당	추가지원 필요	줄여야	모름
식량자급률 향상	18.9	78.8	1.3	1.0
식품의 안전성(환경농업) 확보	14.8	84.3	0.5	0.4
도농 간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	13.3	84.8	1.8	0.1
농촌의 교육, 문화, 복지 확충	9.2	90.3	0.5	0.0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비중을 계층별로 살펴보면, 식량 자급률 향상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았고, 반면 식품 안전성 확보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 밖에 도농 간 소득격차 해소와 복지확충 등에 대한 계층 간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2.1.6. 농업 및 농촌의 역할에 대한 인식

도시민들은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농업 및 농촌이 해 온 역할에 대해 과거부터 현재까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가장 중요한 역할로(38.3%) 꼽았으며, 다음은 ‘자연 환경의 보전’(26.4%), ‘국토의 균형발전’(11.1%), ‘전통문화의 계승’(10.2%), ‘전원생활의 공간’(9.3%), ‘관광 및 휴식의 장소’(4.8%) 순으로 나타났다.

또, 앞으로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는 농업 및 농촌의 역할에 대해 역시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가장 중요하게(29.5%) 꼽았으며, 다음으로는 ‘자연 환경의 보전’(27.9%), ‘전원 생활의 공간’(13.3%), ‘국토의 균형발전’(12.1%), ‘관광 및 휴식의 장소(농촌경관보전)’(9.0%), ‘전통문화의 계승’(8.1%)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민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농업 및 농촌 역할에 대해 모두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가장 중요한 역할로 꼽았으나, 향후 역할의 중요성 인식은 과거에 비해 8.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통문

표 3-11. 농업·농촌의 역할 변화에 대한 인식

단위: %

<과거부터 현재까지 역할>		<향후 중요시될 역할>	
구 분	비율	구 분	비율
식량의 안정적 공급	38.3	식량의 안정적 공급	29.5
자연환경의 보전	26.4	자연환경의 보전	27.9
국토의 균형발전	11.1	전원생활의 공간	13.3
전통문화의 계승	10.2	국토의 균형발전	12.1
전원생활의 공간	9.3	관광 및 휴식의 장소 (농촌경관 보전)	9.0
관광 및 휴식의 장소 (농촌경관 보전)	4.8	전통문화의 계승	8.1
계	100.0	계	100.0

화 계승'도 향후 역할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농업·농촌의 전통적인 역할에 대한 인식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전원생활의 공간' 제공은 4.0%p 증가하였고, '관광 및 휴식의 장소(농촌경관보전)' 제공 역할도 4.2%p 증가해 향후 주5일 근무제 확산 등에 따라 여가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2.1.7. 선행 연구와의 비교

농업·농촌의 역할에 대한 선행 조사연구 결과와 이 연구의 비교가 <표 3-12>, <표 3-13>에 제시되어 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각 조사연구의 조사 방법 차이로 백분율의 절대치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는 점이다. 또 복수 응답을 허용한 조사의 경우에도 합계를 통계 처리할 때 200%로 한 경우(박대식·김정호 1999, 일본 총리부 1996)와 100%로 처리한 경우 등 일치되지 않아 단순 비교는 적절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비교는 조사당시 강조되었던 문항의 우선순위를 파

악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가. 지금까지의 농업·농촌의 역할 비교

지금까지 농업·농촌의 역할에 대한 선행 연구는 김종숙, 민상기(1994), 농협중앙회(1997), 농업인의 날 추진위원회(1999), 박대식, 김정호(1999)가 있으며, 일본이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조사결과도 참고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중심으로 1994년 이후 인식변화를 선행연구와 비교를 통해 살펴본 결과 1994년 이후 2004년까지의 조사에서 도시민들은 가장 중요할 역할로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꼽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역할 인식은 매년 뚜렷이 낮아져 1994년(72.8%)→1999년(51.5%)→2004년(38.3%) 등의 인식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인식변화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자급의식이 농산물 시장 개방 등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농업·농촌에 대한 역할이 식량 생산이라는 전통적인 사고에서 농업의 다양한 다른 가치로 옮겨가고 있는데서 나타나는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부각되어 온 중요도 인식은 ‘자연 환경의 보전’ 역할로 특히 1999년과 2004년 본 연구 등 최근에 들어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뚜렷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조사에 비해 ‘전통 문화의 계승’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전원생활 공간’ 제공과 역전된 현상을 보이기도 했으나 ‘전통문화의 계승’과 ‘관광 및 휴식의 장소’ 등의 역할에 대해서는 여전히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조사결과를 1996년 일본 총리부가 조사한 결과와 비교해 보면, 조사 문항이 일치하지는 않으나 일본 국민도 역시 농업·농촌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식료 생산의 장’을 들고 있어 식량 공급이

표 3-12. 지금까지의 농업·농촌의 역할 비교

김종숙, 민상기 (1994년)	농협중앙회 (1997년)	농업인의 날 추진위 (1999년)	박대식, 김정호 (1999년)	본 연구 (2004)	<참고> 일본 총리부 (1996년)
국민식량공급 (72.8%)	국민의 식량 공급(69.4%)	국민의 식량 공급(51.5%)	식량의 안정적 공급(72.7%)	식량의 안정적 공급 (38.3%)	식료생산의 장 (74.9%)
자연환경과 국토보전 유지 (10.5%)	국토의 균형 발전(9.5%)	경제성장 초기의 물가 안정과 공업 화를 위한 희생(30.8%)	자연환경의 보전(41.0%)	자연환경 보전 (26.4%)	생활의 장 (29.7%)
국가 전체 사회 의 안정조성 (6.2%)	자연환경의 보전(6.6%)	자연환경의 보전과 녹색 공간의 제공 (14.1%)	국토의 균형 발전(27.1%)	국토의 균형발전 (11.1%)	재해방지 (23.6%)
생활문화의 창조와 유지 (5.6%)	타 산업에 노동력 공급 (5.1%)	전통문화의 계승(4.5%)	전원생활의 공간(25.4%)	전통문화 계승 (10.2%)	야외교육의장 (18.1%)
타 산업 발전에 기여(2.8%)	전원생활의 공간(2.6%)	전통문화의 계승(3.3%)	전통문화의 계승(23.1%)	전원생활 공간 (9.3%)	전통문화보전의 장(12.6%)
기타(2.1%)	기타(2.3%)	기타(0.3%)	관광 및 휴식의 장소(6.9%)	관광 및 휴식 장소 (4.8%)	레크레이션의장 (8.1%)
			기타(1.4%)		기타(7.2%)

주 1) 박대식, 김정호, 1999. '농업·농촌의 역할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
p.56-57 표에 1999년 이후 조사 결과 첨가.

2) 위 표에 제시된 1999년 박대식, 김정호의 조사와 1996년 일본 총리부 조
사 결과는 복수응답 결과를 200%로 통계처리 하였음에 유의해야 한다.

라는 중요도 인식에는 우리 나라 국민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나. 향후 중요시될 농업·농촌 역할

앞으로의 예견되는 역할에 대한 비교는 <표 3-13>에 나타나 있다.
역시 도시민들은 농업·농촌이 지금까지의 역할과 같이 식량의 생산
및 공급이 향후에도 중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식량의 안정적 공급'의 역할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최근으

표 3-13. 향후 중요시될 농업·농촌 역할

김종숙, 민상기 (1994년)	농협중앙회 (1997년)	농업인의 날 추진위원회 (1999년)	박대식, 김정호 (1999년)	본연구 (2004)
자연환경과 국토 보전 유지(41.4%)	국민 식량공급 (37.4%)	국민에게 안전한 농 산물공급(74.2%)	식량의 안정적공 급(61.3%)	식량의 안정적공급 (29.5%)
쾌적한 생활 휴식 처 제공(17.3%)	국토 균형발전 (27.3%)	자연환경의 보전과 녹색 공간의 제공 (22.2%)	자연환경의 보전 (48.1%)	자연환경의 보전 (27.9%)
국민식량공급 (16.9%)	자연환경 보전 (16.8%)	전통문화의 계승 (3.3%)	국토의 균형발전 (30.2%)	전원생활의 공간 (13.3%)
국가 전체사회의 안정조성(9.2%)	전통문화 계승 (5.5%)	기타(0.3%)	전원생활의 공간 (26.7%)	국토의 균형발전 (12.1%)
타 산업 발전에 기여(6.6%)	전원생활 공간 (4.7%)		전통문화의 계승 (17.2%)	관광 및 휴식장소 (9.0%)
기타(3.1%)	타 산업에 노동 력 공급(4.6%)		관광 및 휴식의 장소(13.5%)	전통문화의 계승 (8.1%)
	기타(2.3%)		기타(1.3%)	

주 1) 박대식, 김정호, 1999. '농업·농촌의 역할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
p.56-57 표에 1999년 이후 조사 결과 첨가.

2) 위 표에 제시된 1999년 박대식, 김정호의 조사 결과는 복수응답 결과를
200%로 통계처리 하였음에 유의해야 한다.

경의 보전'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1999년과
비교해서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전통문화의 계승'에 대한 역할 인
식은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 농업인과 도시민의 농업·농촌 역할의 인식 차이

지금까지 농업·농촌의 역할에 대한 선행 조사연구에서는 주로 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여기에서는 한국농촌
경제연구원이 2003년 말 현지통신원, 즉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와 비교를 통해 농업인과 도시민의 의식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⁶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농업·농촌의 역할에 대한 농업인과 도시민의 인식차이는 전체적으로 양 집단간 인식하는 중요도 순서에는 차이가 없었다. 즉,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는 ‘식량안보’를 가장 중요한 역할로 꼽았다.

다음으로 ‘자연 환경의 보전’, ‘국토의 균형발전’, ‘전통문화 계승’, ‘전원생활의 장소’ 순으로 동일하게 응답하였다.

이처럼 인식 순서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각 항목에 대한 비율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측면에서는 농업인이(44.5%) 도시민(38.3%)보다 6.2%p 높게 나타나는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향후 농업·농촌의 역할에 대한 농업인과 도시민의 인식차이는 역시 ‘식량안보’라는 공감대에서는 인식을 같이 했으나, 다음 순으로 농업인들은 ‘자연 환경의 보전’을 꼽았고 도시민들은 ‘국토 균형발전’을 더 우선하는 것으로 응답하여 농업인과 도시민들이 향후 농업·농촌의 역할에 대해 뚜렷한 인식 차이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식량의 생산 및 공급이 지금까지의 농업·농촌의 역할에서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자연환경의 보전, 국토의 균형 발전, 생활공간의 장, 전통문화의 계승 등이 강조되고 있다.

⁶ 김동원, 박혜진 ‘2003년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와 농정현안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농촌경제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패널인 현지통신원 882명을 대상으로 농업·농촌의 역할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였다.

2.2.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가치 인식

2.2.1.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중요성 인식

도시민 개인적으로 인식하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중요도에 대해서는, ‘환경 및 생태계 보전’의 역할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95.6%) 인식했으며, 다음으로는 ‘식량안보 기능’(90.7%), ‘국토의 균형발전’(84.4%), ‘농촌경관보전’(81.3%), ‘사회·문화적 공익기능’(80.7%), ‘고용창출 효과’(63.4%)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중요도 인식이 가장 높았던 ‘환경 및 생태계 보전’의 역할에 대해 중요하다고 인식한 응답자는, 연령별로는 30대가, 성별로는 남자(93.4%)보다 여자(97.8%)가, 학력은 고졸 이상의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3-14.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중요도 인식

단위: %

구분	전혀중요 하지않다	중요하지 않은편	보통 이다	중요한 편이다	매우 중요	모름	점수
환경 및 생태계보전	0.0	0.6	3.8	32.5	63.1	0.0	4.6
식량안보 기능	0.0	1.0	8.3	36.0	54.7	0.0	4.4
국토의 균형발전	0.2	1.7	13.7	52.1	32.3	0.0	4.1
농촌경관보전	0.1	1.7	16.9	54.4	26.9	0.0	4.1
사회·문화적 공익기능	0.0	1.8	17.5	51.6	29.1	0.0	4.1
고용창출 효과	0.5	8.1	27.7	41.1	22.3	0.3	3.8

주: 점수는 중요도 순에 따라 가중치를 주어 평균을 낸 것임.

2.2.2.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인식

농업이 축소되면 ‘농업의 식량안보기능도 같이 약해질 것’이라는 예시에 대해 도시민 89.8%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동의하였으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견해는 10.2%로 나타났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동의한 응답자의 계층 간 분포는 연령대별로는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성별로는 남자(86.8%)보다는 여자(92.7%)가 약간 높은 비율을 보였고, 농촌생활 경험이 없는 집단(92.0%)이 경험이 있는 집단(87.6%)보다 동의 비율이 높았다. 이 같은 인식은 농업전반에 대한 계층 간 인식과 부분적으로 상이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농업전반에 대한 인식과 다원적 기능과 같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걸 보여 주고 있다.

동의한다는 응답자 898명을 대상으로 식량안보 보호 수준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절대로 지켜야한다’(47.4%)는 응답보다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한다’(52.3%)는 응답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절대로 지켜야한다’는 강한 보호 의식을 갖고 있는 집단은, 동영상을 시청한 집단(52.4%)이 시청하지 않은 집단(42.2%)보다 10.2%p 높게 나타났으며, 30, 40대가 50%선을 보인 반면 20대는 37.8%로 나타나 연령대별 차이를 보였다.

표 3-15. 농업축소와 식량안보기능의 관계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 분	농촌생활경험		전체
	있다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	438 (87.6)	460 (92.0)	898 (89.8)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62 (12.4)	40 (8.0)	102 (10.2)
계	500(100.0)	500(100.0)	1,000(100.0)

$$\chi^2=5.28, DF=1, P < .022$$

또, 여자가(50.0%) 남자보다(44.6%)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대졸 이상보다 9.5%p 높게 나타났고, 농촌경험이 있는 경우와 가족이 농사에 종사하는 경우가 비교적 농업보호에 대한 강한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계층별 인식은 앞서 제시한 농업 전반에 대한 인식과 전반적으로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서 ‘국토의 균형발전’과 관련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순서는 ‘지역경제 활성화’(45.5%), ‘지역의 다양한 시설 및 생활환경 보전’(36.9%), ‘과밀인구 분산’(1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응답 비율은 30대와 남자, 고소득층, 농촌생활 경험이 없는 도시민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의 다양한 시설 및 생활환경 보전’이라는 응답 비율은 40대와 여자, 저소득층, 고학력, 농촌경험자, 가족이 농사에 종사하는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와 같은 변인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3-16. 식량안보기능 등 농업 보호 수준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 분	연령별			전체
	20대	30대	40대	
어느 정도의 식량안보는 확보해야 한다	196 (62.2)	151 (46.6)	123 (47.5)	470 (52.3)
유사시를 대비해서 식량안보는 절대로 지켜야한다	119 (37.8)	172 (53.1)	135 (52.1)	426 (47.4)
식량안보를 꼭 지킬 필요는 없다	0 (0.0)	1 (0.3)	1 (0.4)	2 (0.2)
계	315(100.0)	324(100.0)	259(100.0)	898(100.0)

$$\chi^2=19.77, DF=4, P < .001$$

‘과밀인구 분산’은 30대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약간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남자보다 여자 계층에서, 농촌경험이 있는 계층보다 없는 계층에서, 가족이 농사에 종사하는 계층보다 종사하지 않는 계층에서 각각 높게 나타났으나 이와 같은 차이가 뚜렷하게 구분될 정도로 높지는 않았다.

‘고용창출 효과’와 관련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순서는 ‘농촌에 일자리 제공으로 소득 창출’(58.1%), ‘귀농 등 도시 실업자 경감’(27.9%), ‘노인 노동력 농업에 흡수’(12.3%)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연령대별로는, ‘농촌에 일자리 제공으로 소득 창출’은 30대에서 가장 많이 꼽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낮았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서 ‘환경 및 생태계 보전 기능’과 관련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순서는, ‘대기정화 기능’(25.9%), ‘토양유실 경감 기능’(23.5%), ‘수자원 함양기능’(18.0%), ‘홍수조절 기능’(17.8%), ‘수질정화 기능’(13.9%) 순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인식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층에서 ‘대기정화

표 3-17. ‘국토 균형발전’ 기능 중 중요도 인식 순

단위: 명(%)

구 분	연령별			전체
	20대	30대	40대	
지역경제의 활성화	151 (43.4)	183 (50.1)	121 (42.2)	455 (45.5)
지역의 다양한 시설 및 생활환경 보전	134 (38.5)	112 (30.7)	123 (42.9)	369 (36.9)
과밀인구 분산	62 (17.8)	69 (18.9)	41 (14.3)	172 (17.2)
기타	1 (0.3)	1 (0.3)	2 (0.6)	4 (1.2)
계	348(100.0)	365(100.0)	287(100.0)	1,000(100.0)

$$\chi^2=17.10, DF=10, P < .072$$

기능'에 대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별로 '대기정화 기능'은 고소득 계층에서, '홍수조절' 기능은 저소득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표 3-18. '고용창출 효과' 기능 중 중요도 인식 순

단위: 명(%)

구 분	연령별			전체
	20대	30대	40대	
농촌 일자리 제공 소득 창출	203 (58.3)	222 (60.8)	156 (54.4)	581 (58.1)
귀농 등 도시 실업자 경감	94 (27.0)	104 (28.5)	81 (28.2)	279 (27.9)
노인 노동력 농업에 흡수	48 (13.8)	33 (9.0)	42 (14.6)	123 (12.3)
기타	3 (0.9)	6 (1.6)	5 (1.7)	14 (1.4)
모름	0 (0.0)	0 (0.0)	3 (1.0)	3 (0.3)
계	348(100.0)	365(100.0)	287(100.0)	1,000(100.0)

$$\chi^2=26.69, DF=18, P < .085$$

표 3-19. '환경 및 생태계 보전' 기능 중 중요도 인식 순

단위: 명(%)

구 분	연령별			전체
	20대	30대	40대	
홍수조절기능	63 (18.1)	66 (18.1)	49 (17.1)	178 (17.8)
수자원함양기능	58 (16.7)	68 (18.6)	54 (18.8)	180 (18.0)
대기정화 기능	93 (26.7)	88 (24.1)	78 (27.2)	259 (25.9)
토양 유실 경감 기능	88 (25.3)	84 (23.0)	63 (22.0)	235 (23.5)
수질정화기능	42 (12.1)	58 (15.9)	39 (13.6)	139 (13.9)
기타	4 (1.1)	0 (0.0)	3 (1.0)	7 (0.7)
모름	0 (0.0)	1 (0.3)	1 (0.3)	2 (0.2)
계	348(100.0)	365(100.0)	287(100.0)	1,000(100.0)

$$\chi^2=20.13, DF=20, P < .449$$

농촌의 사회·문화적 기능에 대한 가치 인식은, 95.7%가 ‘가치가 있다’고 응답해 대다수 도시민이 농촌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계층에서 긍정적인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변인 간 차이에 유의성은 없었다.

이들 농촌의 ‘사회·문화적 기능이 가치가 있다’는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농촌이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다’(40.9%)는 존재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농촌은 후손들에게 물려 줄 자원이기 때문’(38.6%)이라는 상속가치를 두 번째 가치로 꼽았다.

또, ‘휴양, 농촌체험 등 나의 생활이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11.2%)라는 사용가치와, ‘앞으로 나의 생활이 농촌과 관계가 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9.4%)라는 선택가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 집단에서 ‘농촌은 후손에게 물려 줄 자원’이라는 상속가치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앞으로 나의 생활이 농촌과 관계가 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선택가치에 대한 인식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20. 농촌의 ‘사회·문화적 기능’에 대한 가치 인식

단위: 명(%)

구 분	연령별			전체
	20대	30대	40대	
가치가 있다	339 (97.4)	343 (94.0)	275 (95.8)	957 (95.7)
가치가 없다	9 (2.6)	22 (6.0)	12 (4.2)	43 (4.3)
계	348(100.0)	365(100.0)	287(100.0)	1,000(100.0)

$$\chi^2=5.14, DF=2, P < .077$$

결론적으로 도시민들이 인식하는 농촌의 ‘사회·문화적 기능’은 존재 가치, 상속 가치, 사용 가치, 선택 가치 순으로 나타나 전통적인 가치 인식이 아직도 깊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농촌의 ‘사회·문화적 기능’에 대해 사용가치와 선택가치 등 도시민들이 농촌·농업에 대해 새로운 가치를 인식하고 밀접한 관계로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농촌의 관광과 농촌체험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는, 관심이 매우 또는 대체로 많은 편이라는 응답 비율이 64.8%로 나타났으며, 보통 27.4%, 대체로 또는 전혀 없다는 응답은 7.8%에 그쳤다.

표 3-21. 농촌의 ‘사회·문화적 기능’에 대한 가치인정 이유

단위: 명(%)

구 분	연령별			전체
	20대	30대	40대	
농촌이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136 (40.1)	140 (40.8)	115 (41.8)	391 (40.9)
농촌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원이기 때문에	137 (40.4)	144 (42.0)	88 (32.0)	369 (38.6)
휴양, 농촌체험 등 나의 생활이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44 (13.0)	30 (8.7)	33 (12.0)	107 (11.2)
앞으로 나의 생활이 농촌과 관계가 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2 (6.5)	29 (8.5)	39 (14.2)	90 (9.4)
계	339(100.0)	343(100.0)	275(100.0)	957(100.0)

$$\chi^2=17.55, DF=6, P < .007$$

표 3-22. 농촌 관광과 농촌체험에 대한 관심 정도

단위: 명(%)

구 분	농촌생활 경험		전체
	있다	없다	
전혀 없다	2 (0.4)	8 (1.6)	10 (1.0)
대체로 적은 편이다	35 (7.0)	33 (6.6)	68 (6.8)
보통이다	111 (22.2)	163 (32.6)	274 (27.4)
대체로 많은 편이다	204 (40.8)	221 (44.2)	425 (42.5)
매우 많다	148 (29.6)	75 (15.0)	223 (22.3)
계	500(100.0)	500(100.0)	1,000(100.0)

 $\chi^2=38.10$, DF=4, P < .000

매우 또는 관심이 많다는 응답 비율을 계층별로 살펴보면, 연령대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성별은 여자보다는 남자가, 학력은 고학력 계층에서, 농촌생활 경험유무는 경험이 있는 계층이, 그리고 가족이 농사에 종사하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3. 농업의 다원적 기능 유지 비용 지불에 대한 인식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비용 지불 의사에 대해서는, ‘찬성한다’(48.0%)가 ‘반대한다’(34.5%)보다 많았으며,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17.5%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이 가장 낮은 찬성률을 보였으며, 연령대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찬성률이 높았고, 여자(41.6%)보다는 남자(54.6%)가 찬성률이 높았다.

농촌생활 경험 유무와 관련성은, 경험이 있는 계층(52.8%)에서 비용 지불 의사에 찬성하는 비율이 경험이 없는 계층(43.2%)보다 9.6%p 정도 높게 나타나 농촌생활을 경험한 계층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수준에는 큰 차이는 없었고, 학력별로는 고학력층이 찬성률이 높았으며, 가족 중 농사를 짓는 계층에서 찬성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농업·농촌 관련한 세금 추가 납부의사에 대해서는 박대식, 김정호 (1999) 연구에서도 유사한 조사가 실시됐는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세금을 더 낼 수 있다’는 예시에 ‘아주 반대’ 4.6%, ‘대체로 반대’ 10.0%, ‘그저 그렇다’ 16.8%, ‘대체로 찬성’ 42.6%, ‘아주 찬성’ 25.8%로 전체 68.4%가 세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 간 인식에서는 추가세금에 동의하는 계층이 연령이 많고, 여자보다 남자가, 고학력층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나 이 연구의 조사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처럼 세금 추가납부 의사는 68.4%(1999)→48.0%(2004)로 5년 전에 비해 세금 추가 지불 의사를 가진 도시민이 20.4%p나 줄어들어 도시민의 농업 부문 지원 의지가 약화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본 조사와 거의 같은 시기에 조사되었던 우리쌀 지키기 식량주권 수호 국민운동본부의 ‘농업·농촌·쌀에 대한 전국 도시민 의식조사’

표 3-23. 다원적 기능 유지 보전을 위한 비용 지불 의사

단위: 명(%)

구 분	농촌생활 경험		전체
	있다	없다	
찬성한다	264 (52.8)	216 (43.2)	480 (48.0)
반대한다	164 (32.8)	181 (36.2)	345 (34.5)
잘 모르겠다	72 (14.4)	103 (20.6)	175 (17.5)
계	500(100.0)	500(100.0)	1000(100.0)

$$\chi^2=11.12, DF=2, P < .004$$

에서도 농업·농촌 투자에 대한 납세 의향에 동의한 비율이 50.3%로 나타나 5년전에 비해 추가 납세 의향이 20%p 내외 하락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비용 지불 의사에 찬성하는 응답자를 제외하고 반대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반대하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는, ‘지원금을 납부하고 싶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53.9%), ‘현재의 세금으로 운영을 잘하면 해결될 문제’(12.8%), ‘농촌과 직접 관련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보전해야 하므로’(11.6%), ‘농촌의 환경 및 생태계는 자연적으로

표 3-24. 다원적 기능 유지 보전을 위한 비용 지불 반대 이유

단위: 명(%)

구 분	성별		전체
	남자	여자	
지원금을 납부하고 싶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67 (42.7)	119 (63.3)	186 (53.9)
현 세금으로도 운영 잘하면 해결될 문제	24 (15.3)	20 (10.6)	44 (12.8)
농촌과 관련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보전해야 하므로	20 (12.7)	20 (10.6)	40 (11.6)
농촌의 환경 및 생태계는 자연적으로 보전되어지므로	16 (10.2)	11 (5.9)	27 (7.8)
세금이 다른 곳으로 전용됨/정부 불신	10 (6.4)	7 (3.7)	17 (4.9)
지금도 충분히 내고 있다	4 (2.5)	9 (4.8)	13 (3.8)
농촌에 혜택이 가지 않음	4 (2.5)	0 (0.0)	4 (1.2)
보전할 필요가 없으므로	1 (0.6)	1 (0.5)	2 (0.6)
기타	11 (7.0)	1 (0.5)	12 (3.5)
계	157(100.0)	188(100.0)	345(100.0)

$$\chi^2=31.75, DF=19, P < .033$$

보전되어지므로'(7.8%), '세금이 다른 곳으로 전용되므로'(4.9%)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 밖에도 '지금도 충분히 내고 있다'(3.8%), '농촌에 혜택이 가지 않으므로'(1.2%) 등의 의견도 제시되었다.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라는 응답은 30대와 남자(42.7%)보다 여자(63.3%) 계층에서, 농촌생활 경험이 없고, 가족 중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농업·농촌을 위한 추가세금 징수에 반대하는 이유로 과반수가 경제적인 이유를 들고 있고, 이 밖에도 세금이 다른 곳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불신을 나타낸 응답자도 10% 내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금 운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조사결과 분석 종합

도시민들의 농업의 다원적 가치와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 조사를 종합하면, 도시민들의 농업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상당 수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업의 중요성 인식이 84.2%에 달하고, 시장개방과 관련해 서도 도시민들은 대체로 농업이 지금도 상당 부분 개방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 차원에서 식량안보를 위해 농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식이 95.3%에 달함으로써 개방과 관련한 도시민들의 농업에 대한 보호 의식은 상당히 높은 수준임이 확인되었다.

또, 다원적 기능 중에서는 '환경 및 생태계 보전 기능'을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꼽고 있으며, 나머지 식량안보 기능과 국토균형발전, 사회문화적 공익기능, 농촌 경관 보전 기능도 응답자의 80% 이상이 중요한 기능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처럼 농업에 대한 보호 의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농업에 종사한다면 찬성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37.5%에 불과하고, ‘식량 안보 기능을 절대로 보호해야’한다는 의견은 47.4%로 과반수를 넘지 못했으며, 이 같은 도시민들의 이중적인 농촌관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유지를 위한 세금 추가 지불 의사에서 반영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는 도시민은 48.0%에 그쳤다.

이 같은 결과를 선행 연구(박대식, 김정호 1999)와 비교해 봐도 지난 5년간 도시민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은 크게 바뀌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농산물 시장의 추가개방을 막아야한다’는 데에 동의하는 비율은 1999년 조사 시보다 13.0%p 낮아진 70.9%로 농산물시장 추가 개방에 대해 도시민들은 어느 정도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조사 결과로 제시한 세금 추가 지불 의사는 1999년 68.4%에서 2004년 48.0%로 5년 만에 20.4%p나 낮아져 도시민들의 농업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의사는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농업 및 농촌의 전반적인 의식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계층 간 인식차이를 살펴보면, 우선 계층 간 중요도 인식을 파악하기에 용이한 총 15개 문항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중심으로 계층 간 인식정도를 정리하였다. 물론 이는 계층 간 뚜렷한 인식 차이를 보인 항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으로 전체 조사결과를 다 반영한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같은 전제를 바탕으로 조사결과를 계층별로 분류해 긍정적인 인식 중심으로 정리한 결과, 연령별로는 40대가 20대와 30대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9개 문항에서 긍정적인 인식이 뚜렷해 연령이 높을수록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20대 계층에서는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문항이 전무해 젊은층의 농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음을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

표 3-25. 다원적 기능 도시민 인식 종합(최빈값 중심)

단위: %

분 야	내 용	계
농업의 중요성	지금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	84.2
농업·농촌 가치 인식	초중고 교과 과정에 농촌체험 포함에 찬성	89.7
	농사가 잘못되면 국가경제 전체가 잘못될 가능성이 높다	75.3
	노후생활을 농촌에서 보내고 싶다	63.1
	자식이 농업에 종사한다면 찬성하겠다	37.5
농업개방에 대한 의식	농산물 시장은 지나치게 개방됐다	75.0
	시장개방 확대는 농촌경제 악화 지속 초래	88.3
	모든 국가는 식량안보를 위해 최대한 농업을 보호해야 한다	95.3
	WTO 협상에서 농산물 추가개방 막아야	70.9
	쌀과 같은 기본식량은 국내에서 생산해야	62.7
	식량자급도를 훨씬 더 높여야 한다	71.5
농업정책 지원 동의	식량자급률 향상	78.8
	식품 안전성 확보	84.3
	도-농 소득격차 해소	84.8
	농촌 교육, 문화, 복지확충	90.3
다원적 기능 중요도 (매우, 대체로 중요)	식량안보 기능	90.7
	국토균형발전 기능	84.4
	고용창출 효과	63.4
	환경 및 생태계 보전 기능	95.6
	사회 문화적 공익 기능	80.7
	농촌 경관 보전 기능	81.3
다원적 기능 보호 의식	농촌 축소시 식량안보 기능 약화될 것	89.8
	식량안보기능 절대로 보호해야	47.4
	농촌관광에 관심있다	64.8
다원적 기능 유지 비용 지불 의사	예산지원에 찬성	48.0

또,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많은 9개 항목에서 긍정적인 인식을 한 것으로 뚜렷이 나타났다. 농촌생활 경험 유무와 가족 중 농사 종사 유무는 농촌생활 경험이 있는 계층과 가족이 농사에 종사하는 계층에서 뚜렷하게 긍정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 밖에 학력과 소득 계층 간에는 뚜렷한 인식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사안에 따라 인식을 달리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대체로 국가의 농업 보호에 대한 책임 인식 등에서는 저학력과 저소득 층이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일부 문항에서는 다소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체로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도시민들의 인식에서 취약계층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집단은, 연령별로는 젊은 층, 특히 20대가 취약계층이라고 판단되며, 또 남자가 여자보다 긍정적인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계층으로 파악되었다. 이 밖에도 농촌생활 경험이 없고, 가족이 농사에 종사하지 않는 계층도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었다. 학력과 소득 계층간에는 뚜렷한 인식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표 3-26. 다원적 기능 계층 간 인식 종합(긍정 평가 중심)

비교 문항	연령			성별		농촌생활		가족농사		학력		월소득	
	20	30	40	남	여	○	×	○	×	저	고	저	고
농업의 중요성 인식			•	•		•				•			•
교과 과정 농촌체험 포함		•						•					
농사 국가경제에 큰영향			•	•				•					
농촌에서 노후생활 의향			•	•		•		•		•			
자식 농사종사 찬성				•				•		•		•	
농산물시장 지나치게 개방		•	•	•	•	•		•					
개방 확대 농업·농촌 애로		•	•	•	•								
국가 농업보호에 책임			•	•	•					•		•	
WTO 추가개방 막아야				•				•					
농산물 외국산보다 비싸도국내 생산해야				•	•	•		•					
환경 및 생태계 보전의 역할 중요성		•	•								•		
농업축소되면 식량안보 기능 약해질 것				•		•							
식량안보 절대로 지켜야 한다		•	•	•	•	•		•		•			
농촌관광과 농촌체험에 관심있다			•			•		•			•		
농업의 다원적 기능 유지비용 지불 의사 있다				•		•		•			•		
계	0	6	9	3	9	6	2	10	0	5	3	2	1

주: •는 긍정적인 인식비율이 동일집단 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임.

제 4 장

농업의 다원적 기능 중요도 인식 개인 특성 분석

1. 분석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 설정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범위 즉, 식량안보, 국토의 균형발전, 고용창출효과, 환경 및 생태계 보전, 사회·문화적 공익기능, 농촌 경관 보전의 중요성 인식에 대해 개인 특성이 중요도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통계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 방법은, 위에 제시한 각각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지지강도 즉, ‘전혀 중요하지 않다’에서부터 ‘매우 중요하다’까지 5단계를 종속변수로 하고 개개인의 인구통계적 특성 6가지를 독립변수로 정의하였다. 이들 종속변수는 지지강도 가운데 하나를 답하기 때문에 순서적 성격(Ordered nature)을 가지므로 따라서 분석모델은 ‘순서형 프로빗 모형(Ordered-response Probit Model, OPM)을 선택하였다. 분석 통계프로그램은 SAS 8.0을 이용하였다.

또한 분석범위는 크게 두가지 사례를 가지고 실시하였다. 우선 첫 번째는 6개 각각의 ‘다원적 기능의 중요도’ 인식을 종속변수로, 6개의 개인 특성 변수를 독립 변수로 하여 OPM을 실시하였으며, 두 번째는 농업·농촌 다원적 기능 유지 보전을 위한 비용 지불 의사를 종속변수로, 6개의 개인 특성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OPM을 실시하였다.

2. Ordered-response Probit 모형을 이용한 통계검정

2.1. 변수의 정의

종속변수는 식량안보기능, 국토의 균형발전, 고용창출효과, 환경 및 생태계 보전, 사회·문화적 공익기능, 농촌 경관 보전 등 6개의 다원적 기능 중요도에 대해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중요한 편이다(4점), 매우 중요하다(5점) 등 5점 척도로 구분하여 각각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도시민의 다원적 기능 유지를 위한 비용 지불 의사를 종속변수로 하여 역시 6개의 개인 특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독립변수로 채택한 개인 특성은 성별, 나이, 농촌경험유무, 가족농사종사 유무, 학력, 월평균 수입을 <표 4-1>과 같이 정의하였다. 단, 성별, 농촌경험 유무, 가족 농사 종사유무는 더미변수(dummy variable)로 처리하였다.

표 4-1. 변수의 정의

독립 변수	변수 정의
성별	0= 남자, 1= 여자
나이	1= 20대, 2= 30대, 3= 40대
농촌경험유무	0= 없다, 1= 있다
가족농사종사유무	0= 없다, 1= 있다
최종학력	1= 초등학교 졸업이하 2= 중학교 졸업 3= 고등학교 졸업 4=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이상
월평균수입	1= 50만원 미만 2= 50만원 ~ 150만원 미만 3= 150만원 ~ 250만원 미만 4= 250만원 ~ 350만원 미만 5= 350만원 ~ 450만원 미만 6= 450만원 이상

2.2. 검정 결과

2.2.1. 농업의 다원적 기능 중요도 인식

가. 식량안보 기능 중요도 인식에 대한 개인 특성 분석

농업의 다원적 기능중 식량안보 기능의 중요도 인식에 대한 OPM 적용결과, 6개의 독립변수 중 성별, 나이, 학력, 월평균 수입 등 4개의 변수가 유의수준 5%와 10% 범위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검정치를 나타내었으나, 농촌경험 유무와 가족의 농사 종사 유무등 2개의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에 대한 계측치는 -0.1468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이 식량안보 기능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남성에 비해 낮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이에 대한 추정된 계측치는 0.1231로 나타나 나이가 많을수록 식량안보 기능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높아지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학력에 대한 추정된 계측치는 0.0862로 학력이 높을수록 식량안보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수입에 대한 추정된 계측치는 -7.08E-8로 월평균수입이 높을수록 식량안보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식량안보기능에 대한 도시민들의 중요도 인식은, 남성이 여성보다, 나이가 많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월평균 수입이 낮을수록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같은 결과는 앞서 제3장에서 단순통계로 제시된 결과 및 교차분석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다만, 남성이 여성보다 중요도 인

표 4-2. 식량안보 기능 중요도 인식 OPM 적용 결과

Analysis of Maximum Likelihood Estimates			
Parameter	DF	Estimate	Pr > ChiSq
성별	1	-0.1468	0.0534 *
나이	1	0.1231	0.0143 **
농촌경험유무	1	0.1069	0.2021
가족농사종사유무	1	0.1077	0.2147
학력	1	0.0862	0.0598 *
월평균수입	1	-7.08E-8	0.0617 *

주: 분석에 사용한 OPM 적합성 평가를 위해 우도비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검정통계량 값은 19.5287이고, 연관된 p-값이 0.0034로 귀무가설을 강하게 기각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p < 0.10$, ** $p < 0.05$)

식이 높게 나타난 것은 본 연구 전반의 계층간 인식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식량 안보’라는 특정 사안에 대한 인식결과로서 한정해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국토의 균형발전 중요도 인식에 대한 개인 특성 분석

‘국토의 균형발전’ 기능에 대한 중요도 인식에서는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고용창출 효과 중요도 인식에 대한 개인 특성 분석

고용창출 효과 중요도 인식은, 6개의 독립변수 중 성별과 나이, 월평균 수입 등 3개 변수가 유의수준 각 5%, 10% 범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검정치를 나타내었다.

성별에 대해 추정된 계측치는 0.3087로 여성이 남성보다 고용창출 효과의 중요성에 대해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이에 대해 추정된 계측치는 0.0928로 나이가 많을수록 고용창출 효과의 중요성에 대해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수입에 대해 추정된 계측치는 $-8.14E-8$ 로 월평균 수입이 높을수록 고용창출 효과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고용창출 효과에 대한 도시민들의 중요도 인식은, 여성이 남성보다, 나이가 많을수록, 월평균 수입이 낮을수록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라. 환경 및 생태계 보전 중요도 인식에 대한 개인 특성 분석

환경 및 생태계 보전 중요도 인식은 6개의 독립변수 중 성별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검정치를 나타냈는데, 성별에 대한 추정된 계측치는 0.1968로 여성이 남성보다 ‘환경 및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에 대해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사회, 문화적 공익기능 중요도 인식에 대한 개인 특성 분석

사회, 문화적 공익기능 중요도 인식은, 6개의 독립변수 중 성별과 가족 중 농사 종사 유무 등 2개 변수가 유의수준 각 5%와 10% 범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검정치를 나타냈다. 성별에 대해 추정된 계측치는 0.1514로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문화적 공익기능’의 중요성에 대해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가족농사종사유무에 대해 추정된 계측치는 0.2778로 가족 중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일수록 ‘사회·문화적 공익기능’의 중요성에 대해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 농촌 경관보전 기능 중요도 인식에 대한 개인 특성 분석

농촌 경관보전기능 중요도 인식은, 6개의 독립변수 중 성별, 나이, 가족의 농사종사유무 등 3개 변수가 유의수준 각 5%, 10% 범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검정치를 나타냈다. 성별에 대해 추정된 계측치는 0.1474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농촌경관보전’의 중요성에 대해 높게 생각하고 있으며, 나이에 대해 추정된 계측치는 0.0974로 나이가 많을수록 ‘농촌경관보전’의 중요성에 대해 높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농업 종사유무에 대해 추정된 계측치는 0.1487로 가족 중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을수록 ‘농촌경관보전’의 중요성에 대해 높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농촌 경관보전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남성보다 여성이, 나이가 많을수록, 가족 중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을수록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2.2.2. 농업의 다원적 기능 중요도 인식 분석 종합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6가지로 대별해 이를 종속변수로, 6개의 개

인 특성을 독립 변수로 하여 OPM을 적용해 설명변수들 중 t-통계량을 고려할 때 유의성이 있다고 나온 변수들에 대해서만 <표 4-3>에 제시하였다.

식량안보 기능에 대한 도시민들의 중요도 인식의 계측치는 성별은 부(-)의 관계를 나타내 여성보다 남성이 높았다. ‘고용창출, 환경 및 생태계보전, 사회·문화적 공익 기능, 농촌경관보전 기능’에 대해

표 4-3. 다원적 기능 중요도 인식 OPM 적용 결과 종합

종속변수	독립변수	계수	t-통계량
식량안보	성별	-0.1468	-1.931 *
	나이	0.1231	2.447 **
	학력	0.0862	1.882 *
	월평균수입	-7.08E-8	-1.868 *
국토 균형발전	유의한 설명변수가 없었음		
고용창출	성별	0.3087	4.435 ***
	나이	0.0928	2.026 **
	월평균수입	-8.14E-8	-2.365 **
환경 및 생태계보전	성별	0.1968	2.485 **
사회,문화적 공익	성별	0.1514	2.109 **
	가족종사유무	0.2778	3.388 ***
농촌경관 보전	성별	0.1474	2.047 **
	나이	0.0974	2.046 **
	가족종사유무	0.1487	1.818 *

주: OPM적용 결과 종합은 통계적으로 1%, 5%, 10% 범위내에서 유의한 검정치를 나타낸 변수의 계수값만 표시하였다.

(* $p < 0.10$, ** $p < 0.05$, *** $p < 0.01$)

선 모두 여성일수록 각 기능에 대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3장에서 기초 통계로 설명한 농업의 중요성, 가치인식의 경향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량안보 기능 및 그 외 5가지 기능에 대해 나이는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어 나이가 많을수록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량안보 기능에 대해 학력은 정(+)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학력이 높을수록 식량안보에 대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량안보 기능과 고용창출 기능에 대해 월평균 수입은 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월평균 수입이 낮을수록 식량안보와 고용창출 기능에 대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사회, 문화적 공익기능과 농촌경관보전에 대해 가족종사 유무는 정(+)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가족 중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수록 사회, 문화적 공익기능과 농촌경관보전에 대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3. 다원적 기능 보전 비용 지불 의사 개인 특성 영향

농업·농촌 다원적 기능 유지 보전을 위한 비용 지불 의사의 계층간 인식을 통계적으로 검정하기 위해 비용지불 여부에 정확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집단을 제외한 찬성 집단과 반대 집단을 대상으로 OPM을 적용하였다.

OPM 적용 결과는, 6개의 독립변수 중 성별, 가족 농사종사 유무 등 2개 변수만 유의수준 5%, 10% 범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검정치를 나타냈고, 나머지 4개 독립변수는 유의하지 않았다.

비용지불 의사에 대한 OPM 적용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에 대한 추정된 계수값이 부(-)의 관계로 나타나 성별이 여성집단에서 비용지불 의사의 중요도 인식이 낮게 나타났으며 가족 농사종사 유무에

대한 추정된 계수값은 정(+)의 관계로 나타나 가족 중 농업에 종사한 사람이 있을수록 비용 지불 의사의 중요도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시민들의 농업·농촌 다원적 기능 유지 보전을 위한 비용 지불은, 여성보다 남성이, 가족 중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을수록 높게 인식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표 4-4. 비용 지불 의사에 대한 OPM 적용 결과

Analysis of Maximum Likelihood Estimates			
Parameter	DF	Estimate	Pr > ChiSq
성별	1	-0.2787	0.0022 ***
나이	1	-0.0266	0.6619
농촌경험유무	1	0.0949	0.3441
가족농사종사유무	1	0.2137	0.0381 **
학력	1	0.00309	0.9575
월평균수입	1	3.27E-8	0.4759

주: 분석에 사용한 OPM 적합성 평가를 위해 우도비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검정통계량 값은 17.5972이고, 연관된 p-값이 0.0073로 귀무가설을 강하게 기각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p < 0.10$, ** $p < 0.05$, *** $p < 0.01$)

3. 개인 특성 분석 종합 및 시사점

농업의 다원적 기능들과 이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지불 의사에 있어서 개인특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SAS 8.0 버전을 이용하여 ‘순서형 프로빗 모형(Ordered-response Probit Model, OPM)을 적용하였다.

우선 6개의 다원적 기능들에 대한 개인 특성별 인식이 파라메타

추정치는 성별로는 식량안보를 제외한 나머지 5개의 기능에 대해 정(+)의 관계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중요도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전반에 걸쳐 제시된 인식 결과를 뒷받침하였다.

남성은 다원적 기능의 중요도 인식과 비용지불 의사에서 파라메타 추정치가 부(-)의 관계로 나타나 여성보다 높았으나 이는 전반적인 성향과 상이할 뿐이지 앞서 제3장에서 제시한 기초통계 결과와 같은 결과로 OPM 분석치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밖에, 나이는 6개 종속변수 모두에서 파라메타 추정치가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어 나이가 많을수록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해 중요하다는 인식인 뚜렷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학력이 높을수록 식량안보 기능에 대해 중요도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수입은 수입이 낮을수록 식량안보와 고용창출 기능에 대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의 농업종사 유무는 가족 중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수록 사회, 문화적 공익 기능과 농촌경관보전에 대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업·농촌 다원적 기능 유지 보전을 위한 비용 지불은, 여성보다 남성이, 가족 중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을수록 높게 인식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처럼 비용지불 의사에 대한 중요도 인식에서 여성보다 남성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조사 전반에서 보인 계층별 인식의 경향과 상이한 결과이다. 하지만 제3장에서 제시한 교차분석 결과에서도 전반적인 중요도 인식은 여성이 높았지만 비용지불 의사는 남성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고 있어 OPM 결과가 이를 통계적으로 뒷받침 하는데 무리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원적 기능에 대한 계층간 인식이 부분적으로는 다소 배치되는 현상을 보였으나 전반적으로는 다원적 기능의 중요성에 대해 남성보다 여성이, 젊은층보다 연령대가 높을수

록, 농촌경험이 있는 계층이, 가족이 농사에 종사하는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중요시하는 경향을 뚜렷이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앞서 제3장에서 단순통계로 제시되었던 조사결과와 회귀분석을 통한 계량분석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 5 장

농업의 다원적 기능 대국민 홍보방안

1. 농업의 다원적 기능 대국민 홍보의 필요성

우리 농업·농촌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농업의 지속적인 유지와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으나, 일반국민의 이해 및 공감대 부족으로 자원 조달 및 정책의 실효성 저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농업·농촌 문제의 실상과 내면을 알리고 설득하는 적절한 홍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우리 농업·농촌의 실상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다양한 방법의 홍보수단을 강구해야 하겠다.

특히, 농업·농촌을 경제재로만 인식했을 때 야기될 수 있는 정책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의 농업·농촌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농업·농촌의 기능 유지에 직접적인 지원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농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 변화는 1990년대에 들어와 그 전에 비해 그 폭과 속도가 더욱 커져 UR 타결과 WTO 체제 출범, 그리고 2000년 들어 논의가 가속화된 세계무역기구(WTO) 도하라운드 협상(DDA)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쌀 관세화 협상 등에 따라 농업 분야는 불과 10년 사이에 수십 년간 유지해 온 농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큰 변혁기를 맞고 있다.

특히, 농업에 대한 개방 압력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농업의 식량 생산에 대한 필요성 인식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업을 보호해야 하는 새로운 논리로서 농업의 다양한 가치 즉, 다원적 기능을 부각시켜야 하며 이에 대한 대국민 설득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생산기반이 영세하고 국제경쟁력도 취약한 우리나라의 농업이 개방화 시대를 맞아, 타격을 크게 받는 것은 현재의 농업 여건이나 구조상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닌 농업 부문이 ‘나약하고 비전이 없는 천덕꾸러기 산업’으로 일반국민에게 각인되고, 이로써 정책적인 고려에서도 소외된다면 농업의 다양한 기능과 가치가 함께 축소될 소지가 있음을 인식시켜야 한다.

따라서 농업 홍보는 농업·농촌을 기존에 인식되어 왔던 ‘먹거리 제공’이라는 제한적인 역할에서 종합생명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영역 확대와 사회문화적 기능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 변화가 필요하다.

이 조사연구와 1990년대 중반부터 진행되어 온 농업의 가치에 대한 일반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도시민 대다수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며, 다원적 기능의 유지·보전을 위해 정부의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각종 통상협상에서 농업이 타 산업 분야에 비해 비교열위 산업으로 인식돼 농업 축소 또는 구조조정 대상으로 인

식되어 온 것에 비해 일반 국민, 그 중에서도 도시민들은 농업의 중요한 기능들이 지켜지기를 바라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조사 결과가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이나 여론형성을 주도하고 있는 언론들은 농업에 대한 대다수 일반국민의 인식이 마치 부정적인 것처럼 기정사실화해 통상협상이나 주요 정책 결정에서 농업의 축소 또는 구조조정 압력을 가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도시민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직접적인 지원 의지로 연결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농업·농촌 기능 유지를 위한 세금 추가 지불 의사는 지난 5년 전에 비해 20% 이상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이들 도시민들의 농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납세 의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2. 농업·농촌 대국민 홍보 실태 및 문제점

세계무역기구(WTO) 출범과 DDA 농업협상이 진행되면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깊은 이해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였으나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는 거의 없었으며 간혹 있다 하더라도 그 대상은 농민이고 주요 내용은 농업정책이었다.

최근에는 농림부 주관으로 ‘농촌사랑운동’, ‘러브미 캠페인’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것이 농업·농촌에 대한 범국민 캠페인의 시초라 할 수 있다. 특히, 방송, 텔레비전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홍보 효과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국민적 관심을 끌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 행사도 시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언론사와 농림기관이 공동으로 ‘농촌사랑 1사1촌 운

동'을 전개하여 도농 교류를 촉진하고 있다. 이 행사는 도시의 기업체와 농촌이 자매결연하여 상부상조하는 운동으로 연내 1,000쌍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미 700쌍 이상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 이 밖에도 농림부, 농촌진흥청, 농협, 농업기반공사 등이 도농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관광 및 투자 유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웹사이트를 통한 홍보와 이벤트 행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들은 참신한 기획력의 부족, 지속성의 결여, 다양한 홍보내용 부재 등으로 도시민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농업·농촌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던 일반 국민에게 다원적 기능의 중요성과 가치를 새롭게 인식시키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3. 농업의 다원적 기능 대국민 홍보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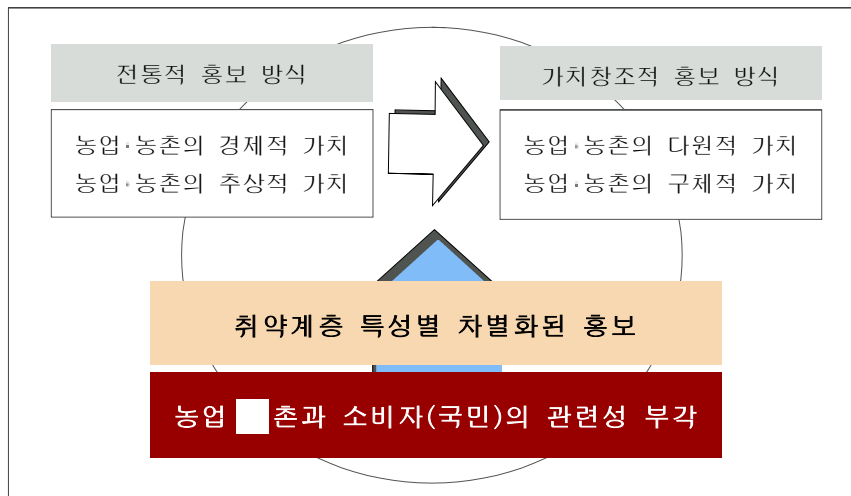
3.1. 기본 방향 및 전략

지금까지의 농업홍보의 기본 방향이 '먹거리'로 대변되는 농업의 경제적 가치 또는 시장가치, 그리고 추상적인 가치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포함한 '농업·농촌의 가치 재발견'이라는 새롭고 구체적인 컨셉을 부각시켜야 한다.

나아가 이런 홍보 방향의 전환에 있어서 그동안 주입식 중심의 홍보를 참여 방식으로 전환해 농업·농촌과 소비자(도시민)와의 관련성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 파악된 취약계층 특성별로 적절한 홍보기법과 내용을 차별화해 적용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홍보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1.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홍보 기본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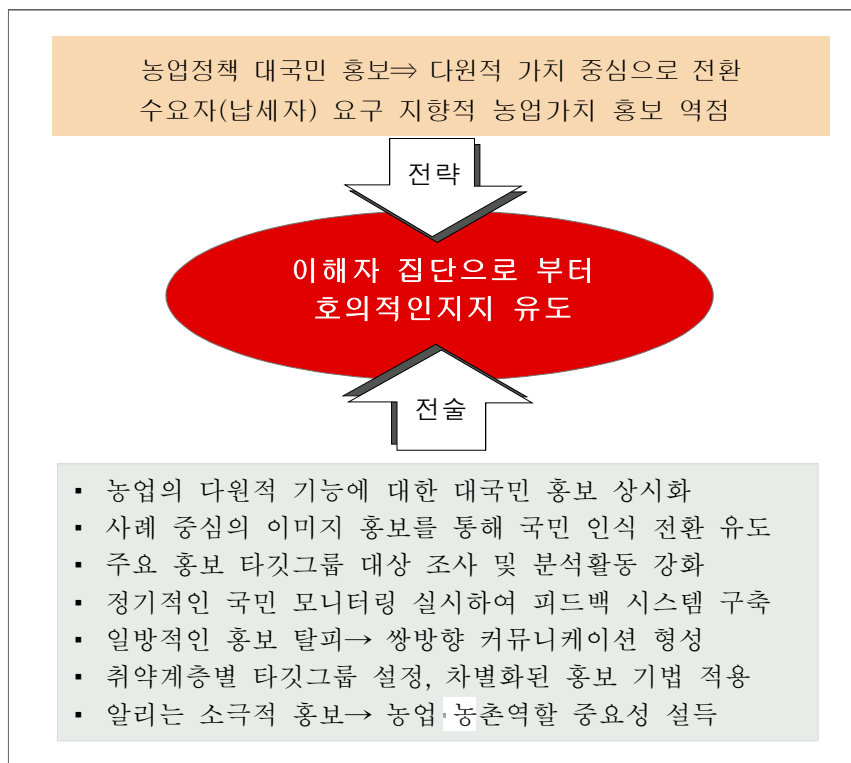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대국민 홍보의 기본 전략은 정책 중심의 홍보를 가치 중심으로 바꾸고, 납세자인 소비자 요구 지향적인 농업·농촌가치 창출에 역점을 두는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상시화하고, 사례 중심의 이미지 홍보를 통해 국민 인식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 주요 홍보타깃 그룹을 대상으로 조사 및 분석활동을 강화해 수요자 요구에 맞는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국민대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홍보에서 벗어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전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별 타깃그룹을 설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홍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5-2.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홍보 기본 전략



3.2. 취약계층별 홍보전략

이 연구에서 도시민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다원적 기능과 관련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계층은 대체로 연령별로는 젊을수록, 특히 20대를 꼽을 수 있고, 또 남자가 여자보다 긍정적인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농촌생활 경험이 없고, 가족이 농사에 종사하지 않는 계층도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홍보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강화되어야 함은 물론 이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차별화된 홍보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우선 취약계층으로 볼 수 있는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학교교육에 농업·농촌의 가치를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고, 더불어 교육관 설치를 통해 상시 교육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20대 젊은 층은 농촌관광과 그린캠프 등 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이러한 홍보에 인터넷, 만화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효율적이라 생각한다. 또, 남자는 1사1촌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고 예비군 훈련장과 민방위 교육장 등에서 식량안보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이 밖에도 농촌생활 무경험자와 가족이 농사에 종사하지 않는 계층에 대해서는 캠페인 등을 통해 농촌을 이해하게 하려는 노력과 그린캠프 등의 체험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표 5-1. 다원적 기능 인식 취약계층별 홍보 방안

취약계층	내용	방법
청소년	학교교육에 농업·농촌 가치 교육 강화	만화, 인터넷, 교육관 설치
20대	농촌관광, 그린캠프 등 체험	인터넷 홍보
남자	1사1촌 등 교류사업 강화	참여프로그램
농촌생활 무경험자	농촌사랑 캠페인 농촌알리기	방송 등 언론
가족중 농사안짓는 자	농촌관광, 그린캠프 등 체험	지자체 주도

3.3. 구체적 실천방안

3.3.1. 후계세대 농업의 다원적 기능 교육 확대 및 강화

이 연구에서 조사된 20대에서 40대까지의 성인 남녀뿐만 아니라 농업·농촌의 잠재 수요자인 후계세대를 대상으로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교육하는 것은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 학교교육(공교육) 교과서에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내용을 확대 반영하도록 교육당국과 협의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현재 초등학교 교육에 머물고 있는 농업·농촌에 대한 후계세대 교육을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해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병영체험’과 같은 성격의 ‘그린캠프’를 학교 정규수업 프로그램으로 제도화해 후계세대에 대한 인성교육과 자연체험, 그리고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서울을 포함한 전국 7대 도시에 농업교육관(홍보관)을 설치해 일반인 및 학생들의 상설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하겠다.

현재 농촌진흥청이 운영하고 있는 농업교육관은 수원에 위치해 지리적으로 도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전시 구성도 농업역사실, 현대 농업실, 미래 농업실, 농업경영정보실, 기획전시실 등으로 방대하며, 대상도 농업인, 도시민, 외국인 등 무차별적이어서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타깃 홍보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비하여 일본 도쿄 중심가인 긴자(銀座)거리에 일본농협전국연합회(JA)가 쌀 홍보를 위해 1991년 설치한 ‘쌀 갤러리’는 평당 연간 임대료가 70만 엔이 넘는 시내 중심가에 쌀 소비 홍보를 위해 만든 전시관으로, 주말에는 하루 4,000여 명이 방문하고 연간 85만 명

이 다녀가는 쌀 홍보관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는 각종 쌀을 전시할 뿐만 아니라 쌀의 영양가, 쌀 요리법 등을 소개하고 각종 요리를 직접 시식할 수 있는 식당이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향후 쌀 소비를 좌우할 수 있는 층이 20~30대 여성이란 점을 간파하고 이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거리에 전략적으로 쌀 홍보관을 설치했다는 점이다. 이는 홍보 주도층을 정확히 타깃화하였다는 점에서 대중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홍보에 머물고 있는 우리 농정홍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농협전국연합회는 이 같은 쌀 홍보관을 동경에 2개를 포함해 총 4곳을 운영하고 있다.

3.3.2. 농촌주민과 도시민 교류사업 강화

농촌주민과 도시민의 교류를 촉진하는 방안도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이해와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예를 들어 1사1촌운동은 2004년 6월 처음 시작되어 5개월 만에 706건의 성과를 거두는 등 전국적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1사1촌 운동의 주요 활동은 급식재료 조달, 농번기 일손 돕기, 농촌체험 참여 등을 통한 상호 협력 이외에, 일부 기업은 기업의 선진기술과 경영기법을 농업에 적용시켜 농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우리 농산물의 소비를 확대시키는 등 내용이 다양하다.

그러나 1사1촌 운동은 아직 양적성장에 비해 질적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 전환 또는 실질적인 경제교류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1회성 방문 및 일손돕기 정도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1사1촌 결연사업이 내실 있게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 개발 보급하고, 社와 村의 관계에서 도시민과 농촌주민의 인적교류로 확대될 수 있도록 참여범위를 넓혀 가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다원적 기능 체험현장 설치 및 교육 상설화가 필요한데, 경남 남해군 가천마을 다랭이 논 등 친환경 생태마을 발굴 및 이들 지역을 상설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일본은 1994년 ‘그린투어법’이 제정된 이후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농촌체험 관광이 활성화돼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농림부, 농협, 농촌진흥청, 농업기반공사가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 웹사이트를 연계 또는 통합하고, 농촌관광에 대한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다원적 기능에 대한 홍보 역할까지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

3.3.3. 전 국민 대상 농촌사랑 캠페인 전개

캠페인 형식의 홍보는 그 파급 효과가 광범위하고 경제적이라는 측면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재계·종교계·학계·여성계·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가 2004년 10월 25일 공식 출범하면서 민간 차원의 농촌사랑운동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시켜나갈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은 앞으로 농촌사랑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이러한 단체들이 앞장서서 ‘농촌사랑’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차량 및 전철 등에 부착하고, 시민단체, 언론 등을 통해 농촌사랑 캠페인을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농업에 대한 국민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하는 언론사와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활용하는 것은 농촌사랑 캠페인을 확대시켜 나가는데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3.3.4. 언론을 통한 홍보 강화

우선 언론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언론계를 대상으로 초청 설명회, 현장견학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농업·농촌이 식량 생산 이 밖에도 국민경제와 정서에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또한 언론 보도내용을 모니터링하여 부정적 보도 시 적극 대처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농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텔레비전 매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연예인의 농촌체험 프로그램, 농촌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 제작 등 농업 관련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것이다. 또한 농촌의 맑은 공기, 오염되지 않은 환경,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등 농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텔레비전광고를 제작하여 지속적으로 방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국산 농산물의 우수성 및 안전성, 수입 농산물과의 차별성, 농산물별 약리작용과 건강증진 효과(예, 생로병사) 등 우리 농산물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언론자체의 기획 홍보활동도 강화 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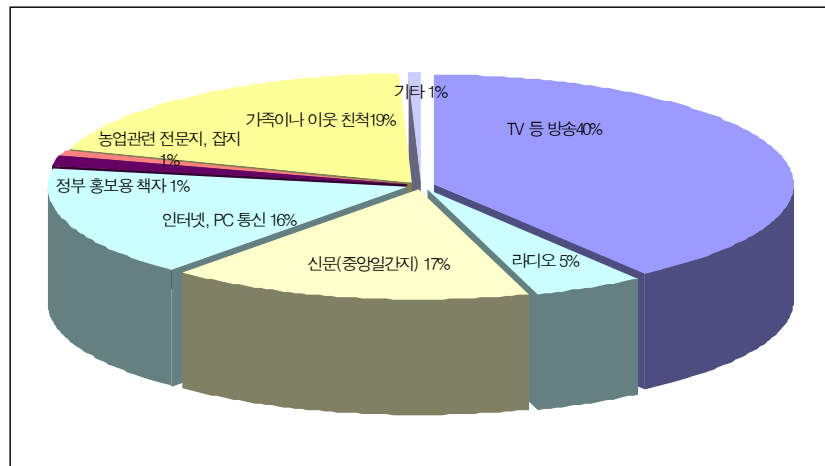
3.3.5. 인터넷 등 신세대 정보매체 활용한 홍보강화

기존 홍보방식에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던 팸플릿과 홍보전단 등 오프라인 방식은 축소하고 농촌정보의 획득원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는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인터넷 매체는 그동안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평면적인 홍보에서 동영상 제공 등을 통한 입체적인 홍보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특히, 본 조사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농업·농촌의 정보를 얻는다는 도시민이 전체 응답자의 16.4%로 나타나 인터넷을 통한 농업·농촌 정보입수가 일반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을 활용하

그림 5-3. 도시민들의 농업 관련 정보 입수 경로



는 홍보매체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인식이 취약한 계층으로 분류된 20대 젊은 층은 인터넷의 활용과 접근이 용이하므로 이들 계층을 타겟으로 한 인터넷 홍보 강화가 중점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 기법에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 전문 홍보 사이트를 구축하고, E-mail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E-mail 서비스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밖에 도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쇼핑몰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 배너광고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소개하는 홍보 전략도 필요하다.

이 밖에도 젊은세대를 겨냥한 농업·농촌 홍보는 젊은세대가 주로 활용하는 정보매체인 핸드폰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는데, 구체적으로는 모바일 서베이, 모바일 광고 등을 들 수 있다. 또, 만화와 같은 매체도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농업·농촌의 다

원적 기능 등에 대한 홍보와 농업 정책을 알릴 때 만화 형식의 책자나 팜플릿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3.3.6. 사회교육 프로그램 강화

사회교육과 연계한 홍보 방안도 필요한데,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민방위교육장, 예비군 교육장 등에서 농업에 대한 강의 및 홍보비디오를 상영하는 것 등이다. 이것은 여론 주도층인 30~40대의 이해를 높이에 효과적일 것이다. 특히, 이와 같은 방법은 본 조사의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인식에서 취약계층으로 분류된 남자 계층을 주 대상으로 공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제 6 장

요약 및 결론

이 조사연구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일반국민(도시민)의 의식을 파악해 농업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조사는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전국 6대 도시 20세 이상 50세 미만의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도시민들의 농업의 다원적 가치와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 조사를 종합하면, 도시민들의 농업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비교적 수년째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도시민들의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상당 수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도시민 84.2%가 ‘지금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12.3%는 ‘앞으로 중요할 것’이라고 응답해 대다수 도시민은 농업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계층 간에는 나이가 많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아, 저소득·저학력 층과 20대 젊은 계층을 대상으로 영상물 등을 이용한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농업 및 농촌의 가치 인식 부분에서, 초중고 교과 과정에 농촌체

험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10명 중 9명 정도(89.7%)가 찬성한다고 응답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고, 농사가 잘못되면 국가경제 전체가 잘못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75.3%가 동의하였으나, 노후를 농촌에서 보낼 의향을 가진 도시민은 63.1%에 그쳤으며, 자식이 농사짓는 것에는 37.5%만이 동의하였다. 자식의 농업종사에 대한 도시민들의 찬성 비율은 63.1%(1999년)→37.5%(2004년)로 5년 동안 무려 25.6%p나 감소하였다.

결국 도시민들은 농업·농촌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중요성과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정작 본인이 농촌에 정착할 의향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식이 농사를 짓는 것에는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다원적 기능의 유지를 위한 국민 개개인의 관심 제고 노력과 함께 농촌의 비전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농촌 이미지에 대한 인식을 보면,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목가적인 풍경의 전원생활에 대한 이미지가 가장 깊게 인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문화·보건·의료 등 농촌복지시설이 미흡한 곳이라는 인식을 가장 많이 꼽았다. 특히, 주거환경 열악, 가난하고 힘든 곳, 지저분하고 환경이 오염돼 있는 곳 등을 꼽은 도시민도 상당수에 달하였다. 따라서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긍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농산물 시장개방과 관련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식량안보를 위해 농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식이 95.3%에 달함으로써 대체로 농업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농산물 시장이 지나치게 개방되었다거나 WTO 협상에서 추가개방을 막아야 한다는 데는 20% 내외의 도시민이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 시장의 추가개방을 막아야한다’는 데에 동의하는 비율은 1999년 조사 시보다 13.0%p 낮아진 70.9%로 농산물시장 추가 개방에 대해 도시민들은 어

는 정도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농업 및 농촌의 역할에 대한 인식에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향후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 가장 중요한 역할로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꼽았다. 다만, 과거보다 향후 중요성이 커질 역할에 대해서는 ‘전원생활의 공간’ 18.6%→26.5%, ‘자연환경 보전’ 52.6%→55.7% 등이 부각된 반면, ‘전통문화의 계승’ 20.3%→16.2%은 오히려 역할이 축소될 것으로 보였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여섯 가지로 분류해 개인적으로 느끼는 중요도 인식을 측정한 결과에서는, 매우 또는 대체로 중요하다는 평가를 중심으로 ‘환경 및 생태계 보전’(95.6%), ‘식량안보 기능’(90.7%) 순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했으며, 이에 반해 ‘고용창출 효과’는 가장 낮게(63.4%)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민들은 농업의 역할이 ‘식량안보’등 국가경제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환경 및 생태계 보전’ 기능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농업이 축소되면 식량안보 기능이 약해질 것이라는 가정에는 10명 중 9명(89.8%)이 동의하였는데, 홍보 영상물을 시청한 집단이(92.4%), 시청하지 않은 집단(87.2%)보다 5.2%p 높게 나타나 홍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식량안보 보호 수준에 대해서는 ‘절대로 지켜야 한다’는 강한 지지는 42.2%로 과반수에 못 미쳐 상황에 따라 보호 수준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국토의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용 창출 효과’에 대해서는 농촌에 일자리 제공으로 소득창출을, ‘환경 및 생태계 보전’ 기능에 대해서는 토양, 대기, 수자원 보전 등 다양한 인식이 혼재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 ‘사회 문화적 기능’에 대해서는 95.7%가 ‘가치가 있다’고 인식

했으며, 그 이유로는 ‘농촌이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인식과, ‘후손들에게 물려 줄 자원이지 때문’이라는 상속 개념의 인식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농촌 관광에 대한 관심은 64.8%가 매우 또는 대체로 많다고 응답했으며, 관심이 전혀 없다는 응답은 7.8%에 그쳐 앞으로 농촌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민들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정작 다원적 기능의 유지 보전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 지불에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소극적인 자세(찬성 48.0%)를 보여 중요성 인식과 비용 지불 의사간에 약간의 괴리가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도시민들이 다원적 기능의 가치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를 선행 연구(박대식, 김정호 1999)와 비교해 보면, 지난 5년간 도시민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과 보호의식은 점점 저하돼 세금 추가 지불 의사는 1999년 68.4%에서 2004년 48.0%로 5년 만에 20.4%p나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 지불 의사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과반수가 넘는(53.9%) 응답자가 경제적인 이유를 들었고, ‘현재의 세금으로 운영을 잘하면 된다’(12.8%)는 의견도 있었다. 이 밖에도 농촌을 위한 세금이 정작 다른 곳으로 전용될 것이라는 불신도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향후 예산 집행에 대한 홍보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들과 이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지불 의사에 있어서 개인특성이 이들 종속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SAS 8.0 버전을 이용하여 ‘순서형 프로빗 모형(Ordered-response Probit Model, OPM)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6개의 다원적 기능들에 대한 개인 특성별 인식에서 파라메타 추정치는 성별로는 식량안보를 제외한 나머지 5개의 기능에 대해 정(+)의 관계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중요도 인

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전반에 걸쳐 제시된 인식 결과를 뒷받침하였다.

이밖에, 나이는 6개 종속변수 모두에서 계측치가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어 나이가 많을수록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해 중요하다는 인식인 뚜렷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식량안보 기능에 대해 중요도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수입은 수입이 낮을수록 식량안보와 고용창출 기능에 대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의 농업종사 유무는 가족 중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수록 사회, 문화적 공익기능과 농촌경관 보전에 대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농촌 다원적 기능 유지 보전을 위한 비용 지불은, 여성보다 남성이, 가족 중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을수록 높게 인식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원적 기능에 대한 계층간 인식이 부분적으로는 다소 배치되는 현상을 보였으나 전반적으로는 다원적 기능의 중요성에 대해 남성보다 여성이, 젊은층보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농촌경험이 있는 계층이, 가족이 농사에 종사하는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중요도 인식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뚜렷이 보이고 있다. 결국 제3장에서 단순통계로 제시되었던 조사결과를 회귀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뒷받침 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농업에 대한 인식에서 취약계층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집단은, 연령별로는 젊을수록, 특히 20대가 취약계층이라고 판단되며, 또 남자가 여자보다 긍정적인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밖에도 농촌생활 경험이 없고, 가족이 농사에 종사하지 않는 계층도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었다.

이처럼 도시민의 대다수는 농업의 다원적 가치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계층별로는 젊은 층보다 50대에 가까울수록 긍정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나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도시민들이 농업·농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깊이 인식하고 있는 반면, 다원적 기능 유지를 위한 비용(세금)을 추가로 지불할 의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다원적 가치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능과 효과를 집중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농업 및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농업 보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홍보방식을 개발해야 한다. 주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정책을 알리는데 치중했던 기존의 홍보 방식을 탈피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농업의 다양한 가치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논리를 개발하여 가치 중심의 홍보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홍보대상을 세분화해 취약계층별로 차별화된 홍보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해 살펴 본 바대로 농업관에 대한 도시민 계층간 인식의 차이는 수년간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농업·농촌의 본질적 가치를 발굴해 내는 올바른 농업관 형성 노력과 함께 농업에 대한 지지기반 확대 차원에서 도시민을 비롯한 국민 계층간의 인식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하겠다.

무엇보다 젊은 세대(20대)와 기성세대(40대) 간의 농업 중요도 인식 격차는 줄지 않고 유지되어 오고 있어 장래 우리 사회의 주역이자 농업의 수요자 중심으로 성장할 20대 계층에 대한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제고 노력과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대국민 홍보 기본 방향은 지금까지 전통적인 홍보 방식이 주로 식량생산으로 대변되는 농업·농촌의 경제적 가치 또는 생산가치, 그리고 추상적인 가치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가치 홍보

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홍보 실천 방안으로는, ① 후계세대에 대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 교육 확대 및 강화, ② 농촌주민과 도시민 교류사업 강화, ③ 전 국민 대상 농촌사랑 캠페인 전개, ④ 언론의 농업관 재정립 및 대언론 홍보 활동 강화, ⑤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강화, ⑥ 사회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홍보에는 취약계층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홍보 전략을 개발하고 적용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부 록

조사표-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선문 1) 현재 귀하께서 사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 ① 서울 강북지역 ② 서울 강남지역 ③ 수도권 신도시
④ 인천 ⑤ 부산 ⑥ 대구 ⑦ 대전 ⑧ 광주 ⑨ 그 외 지역

선문 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선문 3) 실례지만,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10대 --> 면접 중단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선문 4) 귀하는 농업인입니까?

- ① 예 --> 면접 중단 ② 아니오

본 질 문

문 1) 귀하께서는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지금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
- ② 지금까지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중요할 것
- ③ 지금까지도 중요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중요치 않을 것
- ④ 관심 있게 보지 않아 잘 모르겠다

문 2) 농업이나 농촌과 관련된 다음 몇 가지 의견에 대해 여쭙어 보겠습니다.

문 2-1. 초·중·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농촌체험을 포함시킨다면? 귀하는 어떤 것 같습니까?

- ① 매우 찬성 ② 대체로 찬성하는 편임 ③ 보통임
- ④ 대체로 반대하는 편임 ⑤ 매우 반대

문 2-2. “농사가 잘못되면 국가경제 전체가 잘못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① 매우 찬성 ② 대체로 찬성하는 편임 ③ 보통임
- ④ 대체로 반대하는 편임 ⑤ 매우 반대

문 2-3. 귀하는 노후생활을 농촌에서 보내고 싶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임
-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문 2-4. “자식이 원한다면 농업에 종사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① 매우 찬성 ② 대체로 찬성하는 편임 ③ 보통임
- ④ 대체로 반대하는 편임 ⑤ 매우 반대

문 3) 만약 외국 농산물이 국내산 농산물보다 값이 싸다면, 귀하께서는 정부에서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 ① 국내산보다 외국산이 더 싼 농산물은 수입하는 것이 좋다
- ② 국산이 외국산보다 비싸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좋다
- ③ 국내산이 외국산보다 비싸더라도, 쌀과 같은 기본식량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좋다
- ④ 잘 모르겠다

문 4) 우리나라 식량(곡물)자급률은 1970년에 80%이던 것이 계속 감소하여, 2003년 말 현재 30% 수준입니다. 이에 대하여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식량자급도를 훨씬 더 높여야 한다
- ② 현재 수준의 식량자급도를 유지하면 된다
- ③ 외국에서 값싼 식량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식량자급도를 높일 필요는 없다
- ④ 잘 모르겠다

문 5) 귀하는 농촌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십니까? 다음에 제시하는 예시 중 긍정적인 인식과 부정적인 인식을 각 하나씩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5-1. 긍정적 이미지()

- ① 조용하고 전원생활을 할 수 있는 곳
- ②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는 곳
- ③ 자연경관이 보전되는 곳
- ④ 정서, 휴양, 교육적인 가치가 있는 곳
- ⑤ 재해예방과 환경보전의 기능이 있는 곳
- ⑥ 인정이 풍부하고 마을 축제 등 전통적인 풍속이 남아 있는 곳

문 5-2. 부정적 이미지()

- ① 도시에 비해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
- ② 문화, 보건, 의료, 교육 등 복지시설이 미흡한 곳
- ③ 지저분하고 환경이 오염되어 있는 곳
- ④ 자연재해와 병충해가 되풀이되는 곳
- ⑤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곳
- ⑥ 비전이 없는 곳

문 6)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음 세부항목에 대한 의견을 “동의”여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6-1. 농산물시장은 이미 지나치게 개방되었다

- ① 동의한다 ② 동의하지 않는다

문 6-2. 농산물시장이 더 개방되면 농가와 농촌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 ① 동의한다 ② 동의하지 않는다

문 6-3. 모든 국가는 국민의 식량안보를 위하여 최대한 농업을 보호하고 지킬 책임이 있다

- ① 동의한다 ② 동의하지 않는다

문 6-4. UR 협상 때와 달리 이번 WTO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농산물 시장 추가개방을 막아야 한다

- ① 동의한다 ② 동의하지 않는다 ③ 잘 모르겠다

문 7) 다음 세부정책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해 귀하의 의견은 어떠한 것입니까?

- ① 지금이 적당하다 ② 추가지원이 필요하다 ③ 줄여야 한다

문 7-1.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 ()

문 7-2.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지원()

문 7-3. 도농 간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지원()

문 7-4. 농촌의 교육, 문화, 복지 확충을 위한 정책지원()

문 8) 귀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농업 및 농촌이 해 온 역할 중에서 어떤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에서 2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

- ① 식량 안정적 공급 ② 국토의 균형발전 ③ 자연환경 보전
- ④ 전통문화의 계승 ⑤ 관광 및 휴식의 장소(농촌경관 보전)
- ⑥ 전원생활의 공간 ⑦ 기타 (적을 것:)

문 9) 귀하께서는 향후 우리나라 농업 및 농촌의 역할 중에서 어떤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에서 2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

- ① 식량 안정적 공급 ② 국토 균형발전 ③ 자연환경 보전
 ④ 전통문화의 계승 ⑤ 관광 및 휴식의 장소(농촌경관 보전)
 ⑥ 전원생활 공간 ⑦ 기타 (적을 것:)

문 10) 일반적으로 분류하는 농업의 다양한 기능은 ①식량안보 기능, ② 국토의 균형발전, ③ 고용창출 효과, ④ 환경 및 생태계보전, ⑤ 사회·문화적 공익기능 ⑥ 농촌 경관 보전 등입니다. 이 같은 다양한 기능 중 귀하가 생각하는 중요도는 어떻게 됩니까?

- ① 매우 중요하다 ② 중요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그저그렇다
 ④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⑤ 전혀 중요하지 않다

문 10-1. 식량안보 기능(급격한 기후 변화, 전쟁 등 특수한 상황에 대비)-()

문 10-2. 국토의 균형발전(과밀인구 분산,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사회 유지)-()

문 10-3. 고용창출 효과 (도시 실업자 농업 부문 취업, 도시에 노동력 공급)-()

문 10-4. 환경 및 생태계 보전 (지하수 함양과 대기정화, 홍수 조절 기능)-()

문 10-5. 사회, 문화적 공익기능 (전통가치 및 전통문화 유지보전)
-()

문 10-6. 농촌 경관 보전 (가을 들녘, 매화농장, 배꽃 등)-()

문 11) 농업이 축소되면 ‘농업의 식량안보 기능’도 같이 약해질 것
이라고 합니다. 귀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게 생각한다 ②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문 12로

문 11-1. (문 11번에서 ①번 응답자만) ‘식량안보 기능’이 중요하다
면 어느 수준까지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유사시를 대비해서 식량안보는 절대로 지켜야한다
② 어느 정도의 식량안보는 확보해야 한다
③ 식량안보를 꼭 지킬 필요는 없다
④ 기타()

문 12) 농업의 다양한 기능에서 ‘국토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과밀인구 분산 ② 지역의 다양한 시설 및 생활환경 보전
③ 지역경제의 활성화 ④ 기타()

문 13) 농업의 다양한 기능에서 ‘고용창출 효과’에 관한 내용 중 가
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도시 실업자 경감 ② 농촌에 일자리 제공으로 소득 창출
③ 노인 노동력 농업에 흡수 ④ 기타 ()

문 14) 농업·농촌의 다양한 기능에서 ‘환경 및 생태계 보전 기능’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

- ① 홍수 조절기능 ② 수자원함양기능 ③ 대기정화 기능
④ 토양 유실 경감 기능 ⑤ 수질 정화기능 ⑥ 기 타()

문 15) 귀하는 ‘농촌의 사회·문화적 공익기능’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가치가 있다 ② 가치가 없다 --> 문16으로

문 15-1. (문15의 ① 응답자만) 가치가 있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휴양, 농촌체험 등 나의 생활이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
② 앞으로 나의생활 농촌과 관계 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③ 농촌이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기 때문
④ 농촌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원이기 때문

문 16) 귀하는 농촌의 관광과 농촌 체험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 ① 매우 많다 ② 대체로 많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적은 편이다 ⑤ 전혀 없다

문 17) 국가정책으로 농업·농촌의 다양한 기능을 유지·보전하려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귀하께서 이러한 이유로 세금을 추가 징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 ② 응답자만 18번으로, 나머지는 배문 1로 갈 것

문 18) (문17의 ② 응답자만) 농촌의 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세금 증액에 반대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보전할 필요가 없으므로
- ② 농촌과 관련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보전해야 하므로
- ③ 지원금을 납부하고 싶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 ④ 농촌의 환경 및 생태계는 자연적으로 보전되어지므로
- ⑤ 기타 ()

인구통계적 특성

배문1) 귀하께서는 농촌에서 생활하신 적이 있습니까? ()

- ① 있다 ② 없다

배문2) 귀하의 부모나 형제 중에 농사를 짓는 분이 있습니까? ()

- ① 있다 ② 없다

배문3) 실례지만 귀하는 최종학력이 어떻게 되십니까? ()

- ① 초등(국민)학교 졸업 이하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 졸업 이상

배문4) 귀댁의 보너스와 이자를 포함한 한 달 평균 월수입은 얼마
입니까? ()

- ① 50만원 미만 ② 50만원~150만원 미만
③ 150만원~250만원 미만 ④ 250만원~350만원 미만
⑤ 350만원~450만원 미만 ⑥ 450만원 이상

배문5) 귀하는 농업·농촌에 대한 정보를 어느 경로를 통해 얻습니까?
(복수)

- ① 텔레비전 등 방송 ② 라디오 ③ 신문(중앙일간지)
④ 인터넷, PC 통신 ⑤ 농업 관련 전문지 또는 잡지
⑥ 정부 홍보용 책자 ⑦ 가족이나 이웃 친척
⑧ 기타 (구체적으로 :)

참 고 문 헌

- 권오상. 2001.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 권오상, 김기철, 노재선. 2004. “설문조사기법을 이용한 다원적 농업의 범위의 경제성 검토.” 『농업경제연구』 45(2). 한국농업경제학회.
- 권오상. 2003. “가상가치평가법을 이용한 유전자변형 제품의 소비자 수용성에 관한 계량분석.” 『농업경제연구』 44(2). 한국농업경제학회.
- 김동원, 박혜진. 2004. 『2003년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와 농정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연구자료 D18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종숙, 민상기. 1994. 『농업에 대한 국민의식과 사회적 인식 제고방안』. 연구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준순. 1999. “가상가치평가법에서 시간범위에 따른 휴양가치의 차이 해석.” 『한국임학회』 88(1).
- 김태균, 최 관. 1997.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가치 측정:가상적 가치평가의 수정.” 『한국농업경제학회』 38(2).
- 농림부. 1999. “한국 논농사의 다원적 기능: 농업과 토지의 다기능적 특성에 관한 FAO.” 네덜란드 회의 자료. 1999.09.12-17.
- 농촌생활연구소. 2003. 『농촌생활과학』 21(2), 23(3).
- 농촌진흥청. 2003.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활용방안』
- 농협중앙회. 2000. “도시민의 농업관 연구.” 『농협조사월보』 508.
- 박대식, 김정호. 1999. 『농업·농촌의 역할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 연구보고서 R40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명호 등. 1996. 『효과적인 경제정책 홍보방안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 박은식. 2000. 『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가치평가 연구』. 연구보고서. 농촌생활연구소.
- 송해균. 1995. “농촌사회의 변화와 농촌여성의 농업에 대한 태도.”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7(3).

- 엄기철. 1995. 『쌀농사의 공익적 기능 - 농업의 재발견 : 본질적 가치와 발전방향』. 한국농업경제학회. 도서출판 이진.
- 엄대호, 김채수. 2002.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업생산기반정비 추진방향.” 『농어촌과 환경』 12(77). 농어촌연구원
- 오세익. 2001.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가치평가 연구.” 농림부 장관 보고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오세익, 김은순, 박현태. 1995. 『쌀농업의 환경보전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오세익. 2001.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가치평가 연구』. 연구보고서. 농림부.
- 오세익. 2004. “농업의 다원적 기능.” 대통령 보고 위한 비공식 자료.
- 유진채. 1999. “농업의 시장과 비시장적 총합가치 평가모델 개발: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중심으로.” 『농업정책학회』 26(1).
- 유진채. 2002. 『조건불리지역 농업·농촌의 다원적기능에 대한 국민의향 조사와 가치평가』. 연구보고 C2002-7-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윤여창, 이광석. 1995. “농특세 부담의사와 농업의 상징적 가치평가.” 『농업정책연구』 22(2). 한국농업정책학회.
- 이광석. 1997. “도시민의 휴가지 및 주거지로서의 농촌선택 성향분석.” 『한국농업경제학회』 38(1).
- 이무근 등. 1980. 『농업기술 보급을 위한 홍보매체의 활용방안』.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 이인우. 2000. “도시민의 농업관 연구.” 『농협조사월보』 508. 농협중앙회.
- 이재욱. 1999. “농업의 다원적 기능: WTO 차기 농산물협상과 관련한 국제 논의 동향.” 『농촌경제』 22(2).
- 조병구, 한정호. 1995. 『경제정책 관련 캠페인 효과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 최관, 김태균. 1997.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가치 측정: 가상적가치평가의 수정.” 『한국농업경제학회』 38(2).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1. 『갯벌의 생태관광효과에 대한 경제적 가치추정』. 해양정책부문 정책보고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FAO. 1996. *World Food Summit Plan of Action*.

연구보고 R485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04. 12.

발 행 2004. 12.

발행인 이정환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000 팩시밀리 02-959-6110 <http://www.krei.re.kr>

인쇄처 경희정보인쇄(주)

전화 02-2263-7534(代) E-mail khip@khip.co.kr

ISBN 89-89225-76-0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